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56호 【루계 제25565호】 주체106(2017)년 2월 25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 설

전민총돌격전에서 사상전의 포성을 더 높이 울리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위력한 무기는 사상이며 유일한 무기도 사상이다. 우리 당은 주체의 사상론을 틀어쥐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백전백승의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당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은 천만군민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결사관철의 기상, 집단주의의 위력을 총폭발시켜 만리마진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는 일대 사상전이다.

사상전의 힘찬 포성으로 천만심장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상전, 선전선동의 된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상은 혁명의 원동력이다.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명맥이 지켜지고 사상의 힘으로 혁명이 전진한다.

조선혁명의 전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전의 력사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의 무기로 제국주의강적들을 타승하고 사상의 힘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웠으며 사상의 위력으로 천하제일강국건설의 진격로를 열어놓았다. 수령의 혁명사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사상전의 련속포화를 입으켜나가는 일심단결의 대진군이다.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 이것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투쟁의 종자, 혁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우리 당사상사업의 철칙이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천만군민의 확고한 신념으로 만드는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 천만대중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원수님의 참된 동지, 전정한 전우로 준비시켜나갈 때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기상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게 될것이다.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것은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 이것은 끊임없는 사상전의 불길속에 질풍같이 달려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진군방식이다. 온 나라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한 우리 당사상사업은 혁명적군인정신과 강제정신,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강원도정신과 같은 시대정신을 창조하게 한 원천이였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군민이 힘을 합쳐 만리마의 대비약속도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우리 당사상전지들 공격형으로 전성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린것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은 우리 당의 계속혁명사상,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만난을 헤치며 폭풍쳐 전진하는 거창한 창조대전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대의 속도로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는데서 대중의 정신력발동외에 다른 보술이란 있을수 없다. 사상사업, 정치사업의 위력이 높이 발휘되는것만큼 우리의 진군속도가 빨라지고 대고조전역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 증산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되며 세상을 놀랬다놓는 영웅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된다. 사상전의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침체와 부진, 소극과 보수를 불사르며 천만군민의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켜나갈 때 올해 총공격전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는것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자력자강의 위력,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100%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위력한 핵공격수단인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한것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만장약한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킬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자기 힘만 믿고 일떠서는 민족자존의 정신력,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는 굳센 의지의 소유자들은 사상전의 불도가니속에서 육성된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힘찬 진군을 가로막아보려고 정치군사적압박과 발악적인 제재봉쇄책동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으며 우리가 강대해지고 잘살고 흥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불길을 더욱 높여 천만대중의 심장이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세차게 고동치게 할 때 수입병, 남에 대한 의존심과 같은 사상적병집들이 근원적으로 청산되고 원쑤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은 불가물으로 될것이다. 자력자강의 위력을 천백배로 떨쳐나가는 사상전의 열풍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닭알에도 사상을 세우면 바위를 깰수 있다, 이것이 우리 당의 사상중시론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사상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삼고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려나감으로써 올해의 총돌격전을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며 승리떨치는 영웅적대진군으로 빛내여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무장하기 위한 전당적, 전사회적인 학습열풍을 끊임없이 고조시켜야 한다.

학습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첫째가는 의무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들과 당문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여 당의 사상과 정책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한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누구나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정책에 정통하며 당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문제를 중시하는가 하는것을 환히 꿰뚫고있어야 한다. 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며 학습회와 강연회를 비롯한 집체학습에 성실히 참가하고 학습을 게을리하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천만군민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사상교양은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억척같이 쏘아박는 사상의 정대, 마치와 같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길에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우리는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에 선차적힘을 넣고 이 사업을 일관하게 꾸준히 진행해나가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사상교양을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중단없이 밀고나가야 한다. 전체 군인들과 인민들,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열혈충신,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하는 열렬한 애국자, 투철한 사회주의신념과 건강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닌 불굴의 투사,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체질화한 참된 인간으로 키우는데 모를 박고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혁명전통교양, 선군사상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체질화한 진정한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며 혁명전적지답사와 계급교양판참판 등을 의의있게 잘 조직하여야 한다.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모든 초소와 일터가 혁명적열의로 불끓게 하며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노래를 통한 사회주의교양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선전선동의 실효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전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어 어디서나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온 나라가 대중적영웅주의, 집단적혁신의 기상으로 부글부글 끓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드세차게 벌어지고있는 현장정치사업, 화선식정치사업은 모든 일군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평양시당위원회 일군들이 수도시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이룩한 커다란 성과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당정치사업방법을 적극 구현해나갈 때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릴수 있다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군중속에 몸을 푹 잠그고 생산자대중과 일도 같이하면서 기대였이건 논두렁이건 그 어디서나 대중정치사업을 호소성이 강하면서도 통속적으로 참신하게 해나가야 한다. 강연을 하여도 기름냄새, 흙냄새가 나게 하고 선동을 하여도 대중의 피가 끓게 하여야 한다. 인민의 충복이 되여 인민이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함으로써 인민들이 당정책에 스스로 공감하고 그 관철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무책임성과 본위주의와 같은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교양과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야 한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사람들이 어느때나 당의 목소리를 듣고싶어하고 당정책을 땅수를 들어 지지할 때 가슴뿌듯해지는 멋을 천금보다 더 소중히 여길줄 아는 참된 일군, 항일유격대나팔수가 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화선에 정치사업진지를 정하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든 초급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기본정신을 구현하여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각급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사상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상혁명의 불길높이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마다 맥동치는 강원도정신

보통강환수공사 마감단계에서 추진

평양시에서

평양시에서 보통강을 락원의 강으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보통강환수공사는 수백m의 물길굴을 뚫고 수백m의 함거공사와 흡입수조 및 취수로공사, 큰 규모의 뽐프장건설과 전기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어렵고 방대한 공사이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보통강이 사시절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강으로 전변되여 수도의 풍치를 한결 더 돋구어주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자원을 보호증식시키며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한평생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보통강을 락원의 강으로 더 훌륭히 전변시켜주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보통강환수공사를 몸소 발기하시였으며 공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협의회를 열고 방대한 공사를 통제로 청년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청년돌격대를 조직하였다.

시안의 구역, 군, 공장, 기업소들과 시급단위의 청년들이 돌격대에 한원해나섰다. 청년돌격대원들은 현장에 배낭을 풀어놓자마자 전투에 진입하였다. 공사에서 제일 어려운 작업은 수백m의 물길굴을 뚫는것이였다.

물길굴공사를 처음 해보는 청년돌격대원들의 앞길에는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특히 착암기와 압축기가 제때에 보장되지 못해 정대와 함마로 작업갱을 뚫어야 하였다. 하지만 청년돌격대원들은 난관앞에 주저앉지 않고 암반을 정대로 까내며 한치한치 전진하였다.

청년돌격대 대장 엄광철, 정치부장 김철진, 참모장 서복남 동무들은 태오의 앞장에서 정치사업을 벌리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펴기있게 해나갔다. 지휘판들의 힘있는 정치사업과 이신작칙에 고무된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사전을 벌렸다. 그리하여 수십m의 작업갱이 개척되고 기본물길굴을 뚫기 위한 새로운 전투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일군들은 로력보장과 함께 착암기와 압축기를 비롯하여 급진에 필요한 설비들과 물길굴피복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에 힘을 넣었다. 시인민위원회책임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보장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물길굴을 관통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돌격전을 벌리였다. 그들은 세수가 역수로 쏟아져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속에서도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며 순간도 공사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광차를 리용할수 없는 조건이 조성되면 집통과 목도로 버럭을 날랐고 정전이 되여 양수기를 리용할수 없으면 굴안에 차오르는 물을 퍼내면서 치렬한 전투를 벌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통강환수공사정형을 보고받으시고 하루빨리 공사를 끝내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불타는 한마음안고 더욱 분발해나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대용베루를 만들어 리용하고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면서 공사속도를 순간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백두산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청년전사들처럼 자체로 축사와 온실, 양어장을 건설하고 품들어 찾아낸 빈땅에 여러가지 남새를 심었으며 운동장도 번듯하게 닦아놓고 혁명적락관에 넘쳐 전투적으로 생활하며 투쟁해나가고있다.

보통강환수공사를 당앞에 맹세다진 그날까지 기어이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려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몇년은 걸린다고 하던 물길굴공사는 계획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끝나게 되였으며 수백m의 콩크리트함거공사도 보름동안에 결속되였다.

당이 번개를 치면 우리로 화답하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맑은 물이 보통강으로 흘러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 완공

황해북도에서

황해북도에서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였다. 례성강청년3호발전소는 흐르는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많은 발전능력을 조성한 수력발전소이다.

황해북도에서는 이미전에 여러개의 발전소를 건설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례성강청년3호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현시기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례성강에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나라의 전력문제를 풀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창하게 건설된 례성강청년1호, 2호발전소를 찾으시여 례성강발전소는 황해북도의 생명선이라고 하시면서 짧은 기간에 3호, 4호, 5호발전소를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김태진, 한경석, 한시영동무를 비롯한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제기되는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펴기있게 해나갔다.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청년돌격대의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은 발전소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아 강원도정신으로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리항철, 박용수동무를 비롯한 지휘판들과 돌격대원들은 토언제공사장과 발전소기초굴착공사장을 비롯한 모든 전투장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언제건설과 발전기실건축공사, 10여개의 각종 수문제작 및 설치작업을 맡은 봉산화학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밤낮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유춘남, 김정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발전기실의 천정기중기를 자체로 제작하여 공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례성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취수구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끼였다. 한문길, 김금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일정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여러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여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례성강발전소건설돌격기동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실어나르는 심정으로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과 물자들을 제때에 수송하였다.

례성강발전소건설지휘부 람사기술대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공사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헌신의 구슬땀을 흘리였다.

련관단위들에서도 발전설비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발전설비생산을 맡았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긴장한 투쟁을 벌려 짧은 기간에 여러가지 발전설비들을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사리원보이라공장에서는 분형기중기와 취수구권양기 2대, 방수로권양기 1대를 제작설치하여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황해북도첨단기술제품제작소와 국가과학원 해당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도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례성강청년3호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완공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천일

1만여t의 세멘트를 더 생산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상원의 미더운 로동계급이 정초부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현재까지 계획보다 1만여t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려명거리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을 련이어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소식들을 무한한 격정과 환희속에 접하면서 상원의 로동계급은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여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각오를 백배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일군들이 생산현장들에 달려나가 대중과 함께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리면서 로동계급의 애국충정을 활화산마냥 총폭발시켜 세멘트생산의 비약적장성을 이룩하기 위한 첨입식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이룻 참모부에서는 각종 원료, 연료보장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세멘트증산목표를 높이 내세운데 맞게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기동성있게 해나가고있다.

특히 자체의 광석생산기지들을 활성화하면서 올해에 또다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강행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불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이 강원도정신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말로써가 아니라 완강한 실천과 자랑찬 실적으로 조국의 륭성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불타는 열의밑에 전투장마다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다.

생산의 주요공정을 맡은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에서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은 소성직장 로동자들은 설비가동중에 뜻밖의 정황이 조성될 때마다 막반처리작업과 불판교체를 제때에 진행함으로써 일최고생산실적을 갱신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1월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데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세멘트직장 기능공들이 각종 설비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지금까지 1만여t의 세멘트를 증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고 3중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한 중앙조종실의 조종사들은 전반적인 공정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세멘트의 질을 높이면서도 매일 계획보다 200t이상의 세멘트를 더 생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100%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하여 고질세멘트의 국산화를 실현함으로써 자력자강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이 세멘트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전, 두뇌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조합원료직장과 원료직장, 전기직장, 상원석회석광산과 삼청광산, 일출봉광산과 화천탄광에서도 일정계획을 평균 110%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면서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계속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지금 력사의 땅 명당지구에 활화산마냥 타오르는 증산투쟁의 거센 열기는 려명거리건설을 비롯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창조의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강원도인민들을 정신력의 강자로 키워주신 위대한 손길

격동의 만리마시대가 펼쳐졌다.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 강원도인민들이 서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영웅적위훈을 창조한 강원도인민들의 고상한 투쟁정신을 가리켜 우리 시대는 강원도정신이라고 부른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사생결단의 각오와 백절불굴의 의지로 방대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완공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린것을 비롯하여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부강조국건설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강원도인민들의 위훈을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로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로 불러주시며 온 나라가 따라배울데 대한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시대정신의 창조자로 자랑떨치고 있는 강원도인민들은 누구라없이 이 긍지높은 영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현명한 령도가 낳은 고귀한 결정체라고 말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강원도인민들은 절사옹위, 절사관철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이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들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강원도인민들은 조국땅 그 어디서나 만나볼수 있는 그지없이 평범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을 들여다보라. 그러면 그들에게 누구보다 투철한 신념이 간직되여있음을 알수 있다. 우리 혁명의 년대와 년대들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강원도인민들에게 당을 따라 나가는 길이 승리와 영광의 길이며 그 길에 참된 삶과 값높은 행복이 있다는 억센 신념을 사색과 실천의 억센 기둥으로 세워주셨다.

강원도사람이라고 하면 70년전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강원도 평강군의 한 녀성이 떠오른다.

주체36(1947)년 8월 어느날 밀 두말과 감자 한말을 이고 때치마저고리차림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리계산녀성, 그는 두해전까지만 해도 좋살이를 하던 자기를 제땅에서 농사지으며 제 집에서 떳떳하게 살게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를 그 소박한 햇곡식으로 표현하고싶어 먼길을 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리계산녀성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 그가 글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라는것을 아시였다. 그이께서는 그것이 너무도 가슴아프시였다.

우리 인민들이 무서운 힘으로 세계를 놀래울 앞날을 확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돌아가면 부지런히 글을 배워 석달후에 분맹을 퇴치하고 제손으로 자신께 편지를 써보내라고 하시였다.

리계산녀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그 기대와 믿음에 보답하였다. 해방된 이 나라의 평범한 녀성들을, 인민들을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손색없이 키워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웅심을 안 다음에야 어찌 보답이 따르지 않으랴.

고향으로 돌아간 리계산녀성은 그날의 맹세대로 석달만에 분맹을 퇴치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편지를 삼가 올리였다.

그는 봉건의 장막을 제끼고 무식의 암흑에서 벗어난 녀성의 전형으로 되였으며 리계산운동은 분맹퇴치의 대명사가 되였다. 새 생활창조의 앞장에 선 강원도의 산골농사군 리계산을 온 나라가 알게 되였다. 리계산운동은 순박한 인민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나 몰라보게 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변혁운동으로서 력사에 기록되였다.

비록 서툰 편지였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토록 기쁘시여 친히 회답편지도 써보내시였고 표창장과 선물도 보내주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는 리계산녀성의 편지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인민의 힘을 느끼시였으며 비약할 조국의 모습을 보시였다.

우리 수령님께서 시대의 주인공으로 키워주신 평범한 농사군녀성의 모습,

그것은 그대로 강원도인민의 모습이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땅의 주인, 바다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이 된 강원도인민들 모두가 평범한 나날에는 리계산의 모습으로 당과 수령을 성실하게 받들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는 수천수만이 법동농민이 되고 리수덕이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안고 인민군용사들과 함께 건설한 조국수호정신을 발휘하였다.

수많은 유명무명의 강원도사람들이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비롯한 혁명의 년대기들에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열렬한 애국자로 자라나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위훈을 세우지 않았던가.

부흥번영하는 로동당시대와 더불어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곳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강원도인민들의 믿음은 날로 굳건해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 강원도인민들은 백배로 다져진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후세에 길이 빛날 창조물을 일떠세웠다.

주체98(2009)년 1월의 소한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과시하며 강원땅에 웅장하게 일떠선 원산청년발전소를 찾으시였다.

발전소의 어려곳을 돌아보시면서 강원도에서는 원산청년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정신력을 발휘하였다고 뜨겁게 표치하신 위대한 장군님.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정신력,

이 거대한 힘을 안겨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라는 격정의 웨침이 강원도인민들 누구나의 심장속에서 울려나왔다.

지난 시기 도에서는 능력이 큰 발전소를 새로 일떠세울것을 계획하고 건설을 시작했다가 공사량이 너무 아름차기때문에 두번이나 물러섰으며 나중에는 규모를 축소하여 건설하기로 하였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발전소를 건설할바에는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여 원산시의 살림집들에 전기난방까지 할수 있게 본래의 설계대로 통이 크게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며 무엇이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주인답게 랄라붙으면 애국심도 생기고 전개력도 나오기마련이라고 담대한 배짱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발전소건설장을 거듭 찾으시여 난관을 뚫고나갈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며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

강원도인민들은 자력자강의 강자로 되여 그 사랑, 그 믿음에 보답할 한마음을 안고 떨쳐나섰다.

강원땅에 천지개벽을 안아오고 강원도인민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자력갱생의 선구자, 어버이수령님께서 심어주신 자력갱생혁명정신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시한 불굴의 투사로 되게 한 정신력은 이처럼 우리 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이였다.

하건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산청년발전소가 완공되였을 때에는 전기를 몇만kW 얻은것보다 강원도사람들이 정신력의 강자들로 자라난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대견하시였다.

얼마나 기쁘시였으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전에는 강원도사람들을 두고 암하로불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맞지 않게 되였다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였으랴.

바위밑에 앉아있는 늙은 중, 암하로불이 자력갱생의 선구자, 불굴의 투사로!

이것은 강원도사람들이 장구한 세월 굳어질대로 굳어진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떨어버리고 시대의 상상봉에 높이 올라서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강원도인민들의 혁명성과 전투적기질은 지층깊이에서 굳어지는 용암마냥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지고 뜨거워졌다.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새로운 비약과 전진의 원천으로 받아안은 강원도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이름지어주신 원산군민발전소건설도 기어이 완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드리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도인민들이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워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로 드린 원산군민발전소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푸른 물 출렁이며 끝없이 펼쳐진 대인공호수를 바라보시며 멋있소, 대단하오, 하시고 절심한 사랑의 정신력이 얼마나 크고 투서운가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오, 대자연을 마음대로 길들이는 우리 인민의 창조적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오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강원도는 정신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끊임없이 비약하여온 우리 혁명의 력사와 전통을 다시금 만천하에 과시한 력사의 땅으로 되였다.

화선천리 포연탄우를 헤치시여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자욱우에 펼쳐진 력사의 기적,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선군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억척같은 신념과 철의 의지가 슴배인 산발들과 전선길우에 꽃펴난 시대의 자랑.

강원도인민들은 성스러운 력사를 오늘의 투쟁으로 지켜갈줄 아는 인민들이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물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영웅들의 넋이 살아있는 고지들이 강원도에는 수없이 많다.

부대의 돌격로를 얻기 위해 불을 토하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영웅전사의 투비의 희생성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고지에 한약상자를 이고 오르던 남강마을녀성들의 영웅성과 정신력이 이 땅에 고이 간직되여있다.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시기 물길굽을 관통하기 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웨치던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의 영용한 자취도 강원땅은 새겨안고있다.

강원도에 굽이쳤던 자랑스러운 투쟁흔흔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따라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영웅적기상을 과시하며 맥맥히 이어지고있다.

강원도사람들은 누구나 말한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불굴의 정신력, 그것은 그리움의 분출이였다고!

강원땅의 곳곳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강원도인민들의 충정은 더욱더 불타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 희한하게 개건된 원산구두공장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가슴히비는 아픔을 느끼시며 장군님께서 이곳을 돌아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 하는 심정을 뜨겁게 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칠명아래 사과바다가 눈뿌리 아득한 고산땅, 물고기대풍이 펼쳐진 동해포구,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으로 그 면모가 완전히 일신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원산육아원과 애육원…

찾으시는 곳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심중은 강원도인민들의 마음에 가닿았고 그들의 심장을 불같은 충정으로 높뛰게 하였다.

강원도의 가는 곳마다에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절사관철에로 이끌어주는 사려깊은 스승의 손길이였다.

강원도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인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은 장군님의 념원을 풀어드리며 완공된 발전소에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쁨을 드리기 위한 충정의 전투였고 수령절사옹위의 성스러운 격전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물이 가득찬 저수지와 기운차게 돌아가는 발전기를 보여드릴 일념으로 불길굽전설자들은 기성리론에 없는 공법들을 대담하게 받아들이였으며 절사의 각오로 긴장된 격전의 순간순간을 보냈다.

그 총포성없는 격전장들에 끊임없이 울린것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절절한 노래소리였다.

완공된 발전소를 찾으시였던 그날 불굴의 정신력이 펼치였던 수령절사옹위, 당정책절사관철의 격동적인 장면들을 그려보시는듯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뜨거운 감회가 일렁이였다.

발전소언제를 하늘이 천만번 무너진대도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장벽,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위력의 높이로 뜨겁게 안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강원땅에 능력이 대단히 큰 발전소를 또 하나 건설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강원도사람들이 자강력으로 전진하고 비약하는 만리마시대에 자랑스러운 력사를 더욱 빛내이도록 불굴의 정신력을 안겨주시고 걸음걸음 힘있게 떠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을 떠여놓고 원산군민발전소의 장엄한 위용도, 강원도사람들의 자력갱생의 창조력도 결코 생각할수 없다.

강원도정신의 위력이란 결코 개별적사람들이 지닌 정신력의 합이 아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혼연일체를 이룬 군민의 불패의 위력이고 수령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믿음이 발휘하는 생활력이며 사생결단의 각오와 백절불굴의 의지로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길에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의 힘이다.

정신력의 강자, 강원도정신의 창조자인 강원도인민들의 힘은 무진막강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강원도정신으로 폭풍치며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혁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할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수도건설의 나날에 새기신 불멸의 업적 길이 빛내가리

강원도정신은 려명거리건설장에서도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아마도 그것은 계속혁신, 계속전진, 현속공격해나가는 이곳 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어버이수령님의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절사관철하시는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이 길이 자리잡고있기때문이리라.

려명거리와 잇닿은 통성도로에 장산혁명사적지가 있다.

여기에는 와산동-통성도로확장공사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용하시였던 삽과 공사기간 줄곧 메신 목고제, 곡괭이를 비롯한 귀중한 혁명사적물이 소중히 보존되여있다.

주체50(1961)년 5월 15일 수수한 혼방직작업복을 입으시고 남먼저 작업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은 평범한 날이면서도 의의가 큰 날이라고 하시면서 력사적인 첫삽을 뜨시였다. 그 첫삽과 더불어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것이 애국의 최고표현이라는 철리가 깊이 심어지게 되였다. 언제나 목고제를 메시고 공사의 앞장에서 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모범은 대학생들과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에게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드는 전사의 립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새겨주었다.

하기에 장산혁명사적지를 찾아오는 참관자들은 수도건설의 나날에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결의에 넘쳐있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시대정신이 창조되던 력사의 날들에

사선천리의 고비를 강행돌파한 강계정신

강계의 눈보라, 조국이 최악의 역경을 겪던 준엄한 나날에 자강도를 찾고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눈물겨운 헌신의 로고를 강계의 눈보라는 오늘도 전하고있다.

주체90(2001)년 5월 1일 자강도의 책임일군의 방에 전화종이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거신 전화였다.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일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강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군 한다고, 1998년 1월 대한추위때 강계지구를 현지지도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하시며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자강도인민들은 그처럼 곤난한 때였지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고, 참기 어려운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도 언제나 씩씩하고 한만에 넘쳐 일하는 자강도로동계급을 보면서 우리가 약해진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억세여지고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고. …

얼마나 준엄했던 시련의 시기였던가.

그 나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휘몰아치는 설한풍을 헤치시고 이틀동안에 수많은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을 사회주의수호전, 고난의 행군돌파전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수천리 강행군을 단행하신 우리 장군님께 큰 힘을 드리였던 영웅적로동계급의 신념의 목소리는 얼마나 절절하였던가.

강계정신이 타올라 조국은 시련을 딛고 용감하게 일어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초강도강행군길을 따라 눈보라치는 장자강만에 사회주의생활의 밝은 불빛을 떠올린 강계정신을 창조한 자강도사람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온 나라를 불러일으킨 성강과 라남의 봉화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어준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는 어떻게 타올랐던가.

주체87(1998)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금속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해 머나먼 북방길을 달리시여 성강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였다.

모든것이 부족한 준엄한 시련의 시기이지만 성강사람들의 정신만은 변함이 없으며 오직 장군님만 믿고 따르고있다는 한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장군님의 심중은 참으로 뜨거우시였다.

혁명이 난관과 시련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강철로 당을 받들어오지 않았던가.

잠시후 믿음에 넘치신 우리 장군님의 음성이 울려퍼졌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전체 로동계급이 당의 호소에 호응하여 다시한번 천리마를 타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앞장에서 들고나가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을 굳게 믿는다고 하시며 하늘같은 은정을 부어주시였다.

시대의 앞장에서 대고조의 봉화를 지펴가는 선구자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에 고무된 성강의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봉화를 높이 들고 다시한번 천리마를 탄 기세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켜나갈것을 전국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그 믿음이 성강로동계급의 심장마다에 애국의 봉화를 지펴올렸다. 위대한 어버이의 그 사랑이 라남로동계급의 마음과 마음들에 창조와 비약의 봉화가 타오르게 하였다.

최후승리를 앞당길 만리마시대의 정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며 평범한 인간들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의 창조자, 영웅으로 되게 하는 위대한 시대정신이 강원땅에서 태여났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전해져온 강원도녀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알고있다.

해방의 첫 기슭에도, 전화의 나날에도 강원땅의 녀인들은 열혈의 애국자들의 군상을 력사에 남기였다. 강원도녀성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녀맹돌격대활동으로 한몫하였다.

원산군민발전소의 방대한 언제중심강토작업량의 절반을 강원도의 녀맹돌격대가 해제끼였다.

언제나 그리운 우리 장군님 생각, 우리 원수님 생각을 하며 녀맹돌격대원들은 힘겨운 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언제로 가는 도로에 제일 고운 조약돌들을 정히 깔았다고 한다.

하기에 지난해 12월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우리 원수님 강원도인민들의 투쟁본때를 대하고보니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이런 강의한 인민과 함께라면 천리불속이라도 헤쳐갈수 있으며 사회주의강대국의 문패를 달게 될 날을 앞당겨올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것이리라.

이 땅에 만복의 래일을 어떻게 앞당겨야 하는가를 강원도인민들은 자기들의 투쟁으로, 빛나는 실천으로 보여주고있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강원도를 전국의 앞장에 내세워주시였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자력자강의 기수도로.

본사기자 리 금 룡

양어장에 꽃펴난 인민사랑의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평생 멀고 험한 길을 걸고걸으시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시였다. 그 고결한 혁명생애의 갈피마다에는 한 양어장에 꽃펴난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다.

어느해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건확장된 구장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새롭게 변모된 양어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안광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맑은 샘물이 넘쳐흐르는 드넓은 양어장, 아담하게 꾸려진 각종 양어못들, 양어설비들…

이윽고 세끼못, 비육못, 종어못을 거쳐 양어못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색있게 건설한 유리집을 보시면서도 만족해하시였다.

양어장한가운데에 들어서시못가의 고기떼들을 발밑으로 내려다볼수 있게 양어못에 기둥을 박고 바닥에 맑은 유리를 깔아놓은 유리집은 착상도 기발하고 설계와 시공도 독특한 건물이였다.

우리 나라에 또 하나의 독특한 건물이 생겼다고 만족해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서도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이때 살찐 칠색송어들이 걸음을 옮기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욱자욱을 메를 지어 따라섰다. 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한 일군이 기쁨에 넘쳐 위대한 장군님께 칠색송어들이 장군님께로 떼지어 오는것 같다고 말씀드리였다.

참으로 신비롭기 그지없는 일이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고기들이 자신의 말씀을 알아듣기라도 하는듯 이야기하시였다. 나에게 오지 말고 인민들에게로 가라고.

그이께서는 해학적으로 뇌이시였지만 마디마디 얼마나 심원한 뜻이 담겨져있는 교시였던가.

참으로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 사시는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세계가 일군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력사의 순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양어못에서 칠색송어들이 떼를 지어 노는것이 볼만 하다고, 기분이 좋다고, 이런 물고기들을 인민들에게 많이 공급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칠색송어를 비롯한 맛좋은 물고기들이 인민들에게 많이 차례지게 할데 대한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되새길수록 일군들의 눈앞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히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어려왔다.

허리띠를 더 조여야 했던 준엄한 조국수호의 나날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게 잘살 앞날을 그려보시며 양어의 지향한 현실을 펼치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인민의 식탁우에 메기와 칠색송어도 올려놓고 세상에 이름난 맛좋은 물고기료리들을 다 올려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하시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그 비범한 령도가 있어 훌륭한 양어기지들이 이르는 곳마다에 솟아나고 철갑상어양어의 성공이라는 기적도 일어난것 아니랴.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양어장을 개건확장한데 맞게 칠색송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양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양어는 수익성이 높은 경제적인 생산분야입니다. 양어를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습니다. 최근시기 군대와 사회에서 건설한 양어장들에서 많은 물고기를 생산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양어를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증명된 양어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더 많이 먹일수 있는 가장 빠른 방도입니다. …

그이의 가르치심에 감동을 금치 못하며 일군들은 우리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으로 가슴설레였다. 그러는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양어를 혁명적으로 벌려 우리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풍족하게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소원을 하루빨리 풀어드려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8월의 폭양이 쏟아져내리는 무더위속이지만 맑고 푸른 물이 출렁이고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는 양어장에 위대한 장군님을 잠시나마 더 모시고싶은것이 일군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동무들이 여기에 더 머무르면서 더위를 가시고 피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고맙다고, 자신께서는 또다시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야 한다고 하시며 걸음을 옮기시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들의 더 큰 행복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눈금이 젖어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본사기자 김 성 남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자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한다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전선에 먼저 불을 지피고 사상사업의 화력을 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는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커다란 생활력을 과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을 취재하면서 느낄수 있었다.

사상전의 주타격방향을 바로 정하고

사상전의 주타격방향을 어디에 정하는가 하는것은 그 실효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시당위원회는 령도업적단위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교양거점을 꾸리는 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전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였다. 령도업적단위들이 모든 면에서 기치를 들고나가게 하며 그것을 불씨로 시안의 모든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시당위원회는 순천혁명사적관을 개건하기 위한 사업과 시에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적자료를 하나라도 더 찾아내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교양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려나갔다. 시당위원장 오용건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을 발이 닳도록 찾아다니면서 수십상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며 학술내용구성안과 학술배렬도를 완성하게 하였다. 특히 참관을 통한 교양사업은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령도업적을 새겨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하였다.

금천혁명사적지가 더욱 훌륭히 꾸려지고 여러 단위들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표식비가 정중히 건립된 사실, 순천구두공장과 순천제약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 혁명사적교양실이 새로 꾸려지고 령도업적단위들이 면모를 일신하게 된것이 그 실례이다. 이런 사업은 시안의 모든 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시안의 50여개의 당조직들에서 연혁소개실을 꾸린 사실 하나만을 놓고도 말할수 있다.

당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상전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한 여기에 순천시에서 모든 일이 당의 의도에 맞게 잘되여나가고있는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당일군들이 경제선동의 북채를 쥐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경제선동》, 이것은 시당위원회 선전일군들로 조직된 경제선동대에 대한 대중의 평이다.

시당위원회는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선전선동부일군들로 경제선동대를 조직하였다.

시당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동무를 비롯한 선전선동부일군들은 밤마다 북과 하모니카를 메우고 노래련습을 하면서 경제선동준비를 완료하였다.

지난해 3월 경제선동대원들이 먼저 찾은 곳은 령도업적단위인 리수복청년협동농장 포전이였다.

경제선동은 설화와 노래 《로전길 걸을 때면》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저녁시간에는 생활이 어려운 농장원세대들에 들어가 준비해가지고간 후방품자들과 정치도서들을 나누어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씩씩히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경제선동은 정리협동농장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도 벌어졌다. 이에 고무된 시안의 협동농장의 많은 농장원들이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 한결같이 떨쳐나 시적인 영농공정별일정계획을 그 전해에 비하여 10일이나 앞당겨 끝내는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이런 경험에 기초하여 시당위원회는 시당일군모두가 참가하는 예술공연을 준비하였다.

지난해 6월 시문화회관에서 시당위원회일군들이 출연한 예술공연은 대중을 만리마속도창조에로 불러일으킨 위력한 선동이였다. 이것은 온 시에 경제선동바람을 일구어주었다. 시기동예술선동대, 출판물보급소, 동녀맹예술선동대원들도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나가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나갔다. 경제선동의 북채를 당일군들이 먼저 쥘 때 그 위력은 비할바없이 크기마련이였다.

화선식강연선전의 위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2(1973)년 8월 27일 순천역에서 순천군당위원회(당시) 책임일군에게 강연선전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실천을 통해 강연선전의 위력을 체험한 시당위원회는 집중강연선전대활동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었다.

우선 시당위원회 직외강연강사들로 집중강연선전대를 조직하고 강사들에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당책임일군들이 직접 틀어쥐고 밀고나갔다. 이것은 강사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화선식강연선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떠밀어주었다.

순천기관공장현장에서 강연선전의 첫 포성을 울린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이에 고무된 이곳 로동자들은 수년이 걸려야 할수 있다고 하던 새형의 80hp뜨락또르기관생산을 단 48일만에 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70일전투기간에만 하여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단위들을 비롯한 40여개의 단위에 나가 3만 8 000여명을 대상으로 강연선전활동을 집중적으로 벌려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집중강연선전대활동으로 대중을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이곳 직외강연강사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상전선이 들끓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폭발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모든 사상일군들은 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처럼 사상을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손 영 희

항일유격대나팔수들

소중한 멋

지난 1월 중순, 황해북도집중강연선전대원들이 철강재중산투쟁으로 들끓는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철직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과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집중강연선전을 벌리였을 때였다.

용해공들은 강연선전을 통해 받아안은 충격과 흥분을 걷잡지 못해하였다.

《정말 힘이 나는 강연선전이다. 특히 세인을 경탄시키는 우리 원수님의 위대성이 온 가슴에 더욱 깊이 새겨진다.》

《기적의 2016년을 위훈으로 빛내인 그 기세로 올해에도 폭풍쳐 내달려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겠다.》

열정에 넘친 그 모습들을 보며 저도모르게 눈금을 적시는 당일군이 있었다. 그가 바로 집중강연선전대원들과 함께 현지에 나온 도당위원회 과장 김미숙동무였다.

강연이 진실로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산강연으로 실효성있게 진행되여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추동할 때 가슴불꽃해지는 멋과 흥분보다 더 소중히 여길줄 아는 그였던것이다.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벌어지던 지난해에도 참된 당선전일군만이 느낄수 있는 그 멋을 위해 실로 피타게 사색하고 이악하게 실천하였다. 뜻밖의 병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도안의 주요전투장들에는 물론 회령시와 무산군을 비롯한 함북도 북부리해지역에까지 달려가 집중강연선전대원들과 함께 강연선전활동을 낮에 밤을 이어 맹렬히 벌리며 불같은 헌신의 자욱을 찍어왔었다.

그날 강철직장만이 아니라 황철지역을 순회하며 항일유격대나팔소리를 높이 울리게 하는것으로 올해 도집중강연선전대활동의 첫걸음을 기백있게 떼도록 한 김미숙동무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한 중요단위들에서도 강연선전의 포성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리도록 하고있다.

강연선전사업에서 이룩해나가는 이들의 성과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바치는 넋

《그만하면 준비가 다되였습니다.》

경제선동대를 책임진 판교군당위원회 부부장이 자신있게 말하였다.

하지만 군당위원회 부위원장 서분호동무는 웬일인지 선뜻 응대하지 않았다. 무슨 생각인가 골똘히 더듬고있었다.

경제선동대원들을 꼽아보면 20여명 되였다. 군당선전선동부 일군들과 출판물보급소 소장과 보금원, 구호문헌보존실 강사 등 한사람한사람 새로 치뜻이 선발된 성원들이였다. 방송선전차도 준비되고 순회할 협동농장들도 날자별로, 시간별로 이미 정해져있었다.

이윽고 결심이 선듯 부위원장이 말하였다.

《이번 경제선동대가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안고 떠나도록 합시다. 불멸의 꽃을 직접 보여주면서 위대성선전의 포성을 더 힘차게 울립시다!》

그는 필요한 대책을 지체없이 세워나갔다.

부부장은 무릎을 쳤다.

경제선동대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그렇게 나무랄데 없이 하고도 어떻게 하면 그 위력을 최대로 떨치게 할수 있겠는가고 사색을 거듭하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한 부위원장이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전과는 달리 경제선동대가 활짝 핀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안고 경제선동길에 올랐다.

근 열흘간에 걸쳐 군안의 협동농장들을 순회하며 진행된 경제선동은 불멸의 꽃 김정일화의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그대로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속에 절세위인의 위대성을 실로 가슴벅차게 안겨주었고 그들을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추동하였다.

경제선동대원들이 안고간 불멸의 꽃 김정일화!

바로 여기에 5대교양을 비롯한 사상사업을 어떻게 하면 보다 참신하고 실효성있게 벌릴수 있겠는가를 늘 궁리하며 애쓰는 참된 당선전일군의 넋이 뜨겁게 슴배여있다.

본사기자 리 정 수

비약에로 추동한 경제선동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북방의 철의 기지에 총돌격전의 진군나팔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다.

가까운 앞날에 김철에서 울려퍼지게 될 승리의 포성의 전주곡인듯 대야금기지를 진감하는 경제선동의 북소리는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금속공업의 생명선을 지켜가는 영예감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10년전 8월 굴지의 대야금기지 김철을 찾으시여 기동예술선동대의 활동정형을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생산현장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경제선동을 힘있게 조직전개하여 당의 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은 경제선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는데서 기동예술선동대가 차지하는 위치를 깊이 자각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한 높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악기와 이동식증폭기를 비롯하여 예술선동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원만히 풀어주었으며 방송선전차에 필요한 부속품들도 넉넉히 마련해주어 이르는 곳마다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였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에 선철과 압연강재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생산활성화의 밝은 전망이 열려진것도 경제선동의 위력을 높이 떨쳐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킨 결과이다.

올해에도 당위원회에서는 경제선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당위원회일군들은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예술적기량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제기와 정황에 따르는 경제선동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주간선동활동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련합기업소적으로 중요한 전투가 진행될 때마다 사상전의 힘찬 포성으로 전투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하였다.

얼마전 주체철용광로보수공사가 진행될 때였다.

전투장을 남먼저 차지한 박은주동무를 비롯한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이른새벽부터 불은기를 휘날리며 경제선동의 집중포화를 들이대였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강철로 당을 억세게 받들어온 전세대 로동계급의 충실성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나라의 맏아들답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철강재생산성과로 결사옹위하자는 그들의 힘있는 호소는 전투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내화벽돌쌓는 작업이 진행되는 로안에도 서슴없이 들어가 로동자들과 함께 땀흘리며 일도 하면서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는것만큼 대중의 정신력이 분출되게 된다.

이곳 련합기업소당위원회사업은 당조직들이 경제선동을 중시하고 힘을 넣는것만큼 비약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른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비결은 명중포화를 들이댄데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사상의 포문을 열고 명중포화를 들이대는것, 이것은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에서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문제의 하나이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가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기적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합니다.》

사상전을 벌리는데서 당위원회는 우선 과녁을 바로 정하는데 힘을 넣었다.

당정책관철에서 중요고리를 포착하고 당당자인 대중의 특성에 맞게 그들의 정신력을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맹렬하게 들이댔다.

지난 1월초 선군주철공장에서 진행한 당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동무의 정치사업을 실례들어보자.

련합기업소앞에는 대상설비생산을 한달동안에 끝낼 과업이 나섰다. 소재방만 해도 간단치 않았다. 소재가 나오지면 아무리 빨라도 한달은 걸려야 한다는것이 기술일군들의 견해였다. 보다 문제로 되는것은 그 어떤 과업이 제기되어도 두려움 모르던 공장로동자들이 너무나 긴박한 기일때문에 주저하는것이였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함께 《룡성사람들》에 대한 실효모임이 진행되였다.

펜촌으로 8m타닝반과 3천t프레스를 제작하여 세상을 놀래운 선리마대고조시기의 기적, 몇개 나라들에서만 만든다는 1만t프레스를 만들어 세계를 들었다놓은 1980년대의 위훈, 새형의 압축기를 만들어낸 새 세기의 성과…

영화가 끝나기 바쁘게 연타으로 달려나온 생산부기사장, 1키제직장 직장장, 대형공작기계공장 초급당위원장은 불을 토하듯 호소했다. 힘있는 기업소, 영웅적인 기업소의 전통을 이어나가자,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룡성로동계급의 기상을 다시금 떨치자. …

실효는 대단했다. 김철과 순천 등 대공업기지들에 보내줄 대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다.

당위원회가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사상을 발동시킨 실례는 이밖에도 많다. 당책임일군의 착상에 따라 이동식광면전투속보판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긍정을 통한 직관선동의 위력을 더욱 높인 사실, 단위별생산정형과 사상사업실태, 생산문화화 립정형 등을 기록한 동화상자료로 다매체련설물을 만들어 주홍화를 실감있게 진행함으로써 일상설비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났다.

당위원회가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적용하여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사상을 발동시킨 실례는 이밖에도 많다. 당책임일군의 착상에 따라 이동식광면전투속보판을 만들어 리용함으로써 긍정을 통한 직관선동의 위력을 더욱 높인 사실, 단위별생산정형과 사상사업실태, 생산문화화 립정형 등을 기록한 동화상자료로 다매체련설물을 만들어 주홍화를 실감있게 진행함으로써 일군들의 승벽심을 높여준 사실…

이러한 사업들은 당위원회일군들만이 아니라 아래단위 일군들에게 사상사업의 형식과 방법을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할 때 보다 큰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깊이 새겨준 계기로 되였다. 이에 따라 대중의 정신력이 남김없이 발동되고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대렬이 나날이 늘어났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 이어 새해의 전군집에서도 이곳 로동계급이 눈부신 혁신을 이룩하여 룡성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게 된 중요한 비결은 바로 사상사업에서의 명중포화, 여기에 있었다.

본사기자 김 향 란

강원도정신으로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평양화학건재공장에서— 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주체105(2016)년 농업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 진행

【평양 2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주체105(2016)년 농업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에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는것과 함께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과 축산물을 비롯한 농업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 나날에 사리원시 미곡, 룡천군 신암, 재령군 삼지강, 태천군 은흥, 함주군 동흥협동농장들에서는 지력을 높이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들이 이룩하였다.

다수확 시, 군사이의 사회주의증산경쟁에 참가한 수십개 단위들이 알곡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 힘을 넣어 많은 소출을 내였다.

강계돼지공장과 홍주탄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축산기지들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고기와 알생산을 늘이였으며 대동강, 고산과수종합농장 등 과수농장들에서도 높이 세운 과일생산목표를 점령하였다.

사회주의증산경쟁총화모임이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리철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고인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농근맹, 경쟁단위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경쟁총화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쟁단위들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당이 내세운 알곡생산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난해 농업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정해주시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 총동원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판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순위가 발표되고 평양시와 안악군,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표창장과 순회우승기가,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강계돼지공장, 홍주탄공장, 고산과수종합농장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표창장과 순회우승기가 수여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주체106(2017)년 농업부문 사회주의증산경쟁 요강이 발표되였다.

과학기술과 경쟁을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하당은하피복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하당은하피복공장은 일 잘하고 전투력있는 단위로 널리 알려져있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에 공장은 제품생산에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고 김일성훈장을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올해에는 광명성절을 앞두고 2중3대혁명붉은기단위의 영예를 지니였다.

공장의 연혁에 새겨져 빛나는 위훈들은 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 힘을 굳게 믿고 떨쳐나 집단주의위력으로 단위 발전의 기초를 하나하나 쌓아가도록 적극 떠밀어준 결과에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 관점에서 경영활동과 품질관리의 과학화를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한것이다.

몇해전이였다. 생산장성의 예비를 탐구하던 기사장 리영선동무는 새 제품형태에 따르는 생산공정조직과 표준조작법을 기능공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그들이 새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현행생산을 진행하면서 새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을 습득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그것을 원만히 받아들일만 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였던것이다. 적지 않은 초급일군들이 머리를 기웃거리며 주저한것은 우연하지 않았다.

이때 초급당위원회는 기사장의 의견을 지지해나섰다. 그러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선 협소한 과학기술보급실을 확장하도록 하는 한편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한덕수평양정공업종합대학과 장철구평양상업종합대학의 원격대학에 입학한 종업원들이 오후 5시부터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는 조건에서 다른 종업원들은 오전과 오후 5시까지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새 기술을 보급받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게 하였다.

한편 과학기술보급실에서 웃카공방법과 관련한 다매체련설물을 만들어 작업현장과 휴식장소들에 설치해놓은 콤퓨터영상장치들에 보내주어 종업원들이 어느때나 새 기술자료들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종업원들속에서 좋은 반영이 제기되였다.

이 과정에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한계단 높아지게 되였으며 현행생산과 새 제품생산에 따르는 기술습득을 동시에 진행하여 제품의 질도 높이고 시간도 훨씬 단축할수 있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나 작전하고 내밀어도 대중의 자강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조직하고 전개하였다.

오래전에 수입했던 보이라들이 낡아 제품생산에 지장을 주게 되자 일부 사람들이 새 보이라를 사오자고 제기한적이 있었다.

이때 초급당위원회는 기술자들을 믿고 나섰다. 설비를 계속 사올내기를 해서야 우리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수 있겠는가, 낡은 보이라를 개조하는 과정이 집단의 자강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자는 초급당위원장 리윤해동무의 호소는 종업원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설비과와 공무작업반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끝내 낡은 보이라를 개조하고야말았다.

초급당위원회가 과학기술을 비약의 열쇠로 틀어쥐고 자강력을 부단히 높여온 결과 제품의 질이 훨씬 개선되고 생산은 2배로 장성되였으며 그 과정에 2중모범기술혁신단위칭호를 수여받는 성과도 이룩되였다. 지난해에만도 년간인민경제계획을 144%로 넘쳐 수행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자랑스러운 위훈을 떨치였다.

초급당위원회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무슨 일에서나 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쟁열풍을 일으켜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고있는것이다.

지난해초였다. 공장에서는 남새온실과 버섯재배장건설을 벌려놓았다. 녀성들의 힘으로 기초를 파고 블로크를 쌓으며 건물을 일떠세운다는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런데 지배인 조명숙동무는 로동자합숙과 목욕탕도 개건할 목표를 제기하였다.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70일전투에서 통장훈을 부르려는 영웅지배인의 배심은 보통이 아니였다. 종업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남새온실과 버섯재배장건설도 아름찬데 합숙과 목욕탕도 동시에 개건하자고 하니 어찌 그렇지 않으랴. 더우기 이미 있던 합숙과 목욕탕도 그만하면 편찮다고 여기는 그들이였다.

이때에도 초급당위원회는 지배인의 결심을 지지해주면서 종업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당의 은정속에 훈훈하게 일떠선 로동자합숙에서 만복을 누리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의 손으로 행복의 요람을 꾸려가자고 호소하였다. 한편 문화후생시설들을 번듯하게 꾸려놓고 로동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평양시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참관도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분명한 생활은 누가 선사하는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창조해야 한다는것을 더욱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남새온실과 버섯재배장건설과 함께 합숙과 목욕탕개건공사가 동시에 벌어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건설장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도록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는 한편 근로단체조직들을 발동하여 경쟁열풍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나이많은 지배인으로부터 갓 입직한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업원들이 이른새벽부터 떨쳐나 기초를 다지고 블로크를 쌓으며 불꽃튀는 건설전투를 벌리였다. 녀성들의 힘으로 매일 제품생산은 계획대로 내밀면서 방대한 건설도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은 아름찬 일이였지만 자기 힘을 믿고 더 좋은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종업원들의 각오와 열정은 비상했다.

마침내 그들은 총정의 70일전투기간에 남새온실, 버섯재배장과 함께 합숙과 목욕탕을 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하루일을 마친 다음 한증탕에서 땀을 뽑고 식당에서 청량음료를 마시며 종업원들은 창조의 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면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군 한다.

과학기술과 사회주의경쟁을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 집단의 자강력을 부단히 높일 때 단위의 비약적발전이 이룩된다는것을 이곳 당조직의 사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김 승 표

황주군 장천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있다.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농장에서는 지난해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거름생산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모판자재확보와 중소농기구준비도 착실히 하고있다.

농사차비에서는 제3작업반과 제10작업반이 앞장서고있다.

이곳 작업반들에서는 거름실 어내기와 모판자재확보를 전부 끝낸데 이어 중소농기구 수리정비도 잘해나가고있다.

농장에서는 앞선 작업반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작업반별, 분조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농사차비에서 날마다 혁신적성과가 이룩되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홍 철 남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일편단심 받들어갈 신념과 의지

충정의 한마음으로 혁명의 꽃을 붉게 피워가리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자력갱생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호에 충실한 동무들!

이것은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을 찾아주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영예군인들에게 안겨주신 값높은 부름이다. 오늘도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 부름을 심장에 새겨안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장군님의 모습은 영원히 지워질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8월 공장앞에는 인공잔디를 생산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당시 일부 종업원들속에서는 인공잔디를 왜 만들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지배인 한원일동무의 생각도 깊었다.

(우리 공장은 수지일용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더구나 인공잔디기계를 한번 본적도 없지 않은가.)

그의 밤길음은 저도모르게 중공작업반에 있는 수지성형기로 향했다.

그 기계로 말하면 공장의 전세대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만든 첫 설비였다.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포화속에서 탄생한 공장이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전선에서 돌아온 영예군인들은 자그마한 반도굴집에서 영예군인생산협동조합을 무어 일을 시작하였다.

전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예군인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하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영예군인들은 아직 해본 일이 없는 플리염화비닐제품생산을 결의하고 그 설비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때 제일 난감한것이 로라를 해결하는 문제였다. 선반기 한대 없고 야장일이나 할수 있는 정도의 도구 몇개를 가지고 있는 형편에서 로라를 만든다는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였다. 그러나 전화의 불길속에서 조국을 피로써 지켜싸운 그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4명의 영예군인들이 산소병을 메고 옛 싸움터인 눈덮인 1211고지에 올랐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튿날 이튿밤을 새며 전쟁시기에 마사진 미국놈땅크에서 로신을 잘라가지고 왔으며 넉달만에 드디어 비닐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지성형기를 보시고 동행한 일군들에게 이 기계가 뜻이 깊은 기계라고 하시며 이 기계야말로 우리 인민이 미제침략자들을 어떻게 타승하였으며 또 어떻게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재가루만 날리던 조국땅우에 락원을 일떠세웠는가를 진해주는 력사의 증견자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수지성형기를 바라보는 지배인의 마음속에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공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못 견디게 그리워졌다.

새 과업을 받고 방도를 모색하는 지배인에게 힘을 준것은 공장초급당위원장 리병수동무였다. 얼마후 공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교시학습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인공잔디생산기지를 새로 꾸리기 위한 전투의 시작이였다.

임광빈, 최남표, 김군혁, 황금석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인공잔디생산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마사진 미국놈땅크포신을 잘라다 기계를 만들던 전세대들의 그 투지와 정신을 이어받은 그들에게는 접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었다.

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나갔다.

출실규격을 보장하기 위한 실험이 수십번의 실패를 거듭했다는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고심참담한 길을 걸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이런 피타는 노력이 있어 자체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던 풀실용압출기제작을 끝내고 인공잔디생산공정을 확립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지난해 1월 시운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을 때 온 공장이 기쁨으로 설레이였다. 과아란잔디밭처럼 펼쳐지는 인공잔디를 쓸어보는 사람들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여있었다. 충정의 70일전투기간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공잔디생산목표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공장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던 수백개의 수지의자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새로 개건된 강원도 12월6일소년탄야영소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생산한 체육관관람석의 수지의자와 운동장의 인공잔디를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날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며 한목소리로 아뢰였다.

우리의 열정과 지혜, 그것은 어버이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입니다.

그들은 영예군인들이다. 어제날의 공로도 끊임없는 위훈속에서 빛나야 한다는 신념만을 지닌 그들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값높은 부름을 빛내여갈 충정의 마음을 안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자연의 꽃은 계절에 따라 피고진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아름답게 피워가는 혁명의 꽃은 계절을 모르고 향기를 풍긴다.

신 철

소중한 추억, 한생의 재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 우리 청년들처럼 훌륭한 청년들은 없습니다.》

3중3대혁명붉은기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청년작업반을 두고 우리 리의 자랑, 심농군들이 자라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군 한다.

얼마전 리일군들의 이런 이야기에서 일정한 표상을 가지고 청년작업반의 혁신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들중에는 고급중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적지 않았던것이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들의 가슴속에는 3중모범청년작업반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가 깊이 안겨져있었다.

하루 최고 100여t의 유기질비료를 운반하며 한편으로는 각종 모판자재준비를 다그쳐나가던 지난해 첫 영농전투때였다.

작업반의 나어린 청년들은 몸에 익지 않은 농사일이였지만 힘겨움을 이겨내며 이악하게 일손들을 놀리였다. 포전에 제일먼저 달려나오군 하는 첫새벽의 주인들도, 하루일이 끝난 깊은 밤 포전마다에 활활 타오르군 하던 피불의 주인들도 바로 그들이였다.

온 나라가 다 아는 미곡리의 청년작업반원답게 어서빨리 심농군으로 준비하자!

이런 그들을 온 작업반이 도와나섰다. 부문청년동맹위원회 비서 고지원동무는 탕조직의 지도밑에 초급일군들과 모범적인 청년동맹원들의 협의회를 열었다.

우리 작업반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영광의 일터이다. 우리는 작업반에 들어온 청년이라면 누구나 알알이 여문 이삭들처럼 키워야 한다.…

고지원동무의 호소는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초급일군 한명이 여러명씩 담당하여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들속에는 체질이 남달리 약한 한 처녀분조원의 친언니가 되여 이끌어준 4분조 농장원 로순옥동무도 있었고 한 청년이 겪고있는 마음속고충을 헤아려 친누이가 되여 따뜻이 돌봐준 분조장 정영옥동무도 있었다.

작업반장 리광남, 당세포위원장 강철수, 초급단체비서들인 김철영, 유철규동무 등 많은 청년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아시는 미곡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자며 모르는것은 가르쳐주고 애로되는것은 두팔걷고 풀어주며 작업반의 청년들을 위훈에로 불러일으켰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은 작업반장으로부터 마지막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청년들의 심장속에 혁신의 불길을 지피는 불씨가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농장에 모셨던 소중한 추억, 그날에 주신 교시를 삶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투쟁한 여기에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이 전국의 앞장에서 변함없이 충정의 한길만을 걸어나갈수 있게 한 원동력이 있었다.

정든 수도를 떠나 청년작업반에 뿌리를 내린 유한원동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한생의 재부가 있다면 그것은 영광의 땅 미곡리의 로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알찬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미곡리의 풍요한 가을을 가꿔가며 청춘을 빛내여가겠습니다.》

이것은 미곡리청년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줄처럼 간직한 이 나라 청년전위들의 충정의 마음을 길이 새기며 황금이삭 물결칠 미곡리의 흐뭇한 가을풍경을 그려보았다.

염 금 명

《첫 의정》, 이 글발을 가슴에 새기고

평양수지연필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사적을 빛내이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수도 평양의 중심에 들어앉은 아담한 공장, 그 이름만 불러보아도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후대사랑의 세계가 가슴에 안겨오는 평양수지연필공장의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안겨왔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필기도구를 안겨주시려 공장을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어려있는 공장이였다.

그날의 로정을 따라 사출직장에 들어선 우리의 발걸음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아주시였던 250형 1호사출기앞에서 멎었다.

기대에서 유별나게 눈에 뜨인것은 《첫 의정》이라고 새겨진 글발이였다. 알고보니 직장의 모든 기대들에 꼭같이 《첫 의정》이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하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글발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올랐다.

250형 1호사출기앞에는 40대의 녀성이 서있었다.

그가 바로 어젯해전 5월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 작업모습을 보여드렸던 기대공 김혜경동무였다.

단발머리 처녀시절부터 공장에서 손꼽히는 혁신자로 일해온 기능공이여서 위대한 장군님앞에 나서면 자기의 능숙한 솜씨를 보여드리리라고 열백번 마음다졌지만 그이를 뵈옵는 순간 눈굽이 젖어들어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김혜경동무의 두볼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누구나 지닐수 없는 영광의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나 력 수 책해지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뵈옵고는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습니다.》

그날 김혜경동무를 비롯한 공장의 종업원들은 눈물속에 맹세다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기어이 관철하여 기쁨속에 그이를 다시 모시리라고.

《첫 의정》, 그 글발에 담겨져있는 어머니당의 후대사랑을 영원히 빛내여가리라고.

온 공장이 떨쳐나섰다.

김혜경동무는 두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였지만 집에 있은 날보다 일터에서 보낸 날이 더 많았다. 자기 기대를 돌리면서도 여러 기대를 맡아보느라고 쓰러졌다가도 피눈물의 12월에 다진 맹세를 지켜 분연히 일떠서군 한 김혜경동무는 그 나날에 직장의 혁신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 자라났다.

대다수가 녀성들로 이루어진 조립직장의 종업원들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우리가 계획을 끝내야 공장이 계획을 완수한다는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수십년간 혁신자로 일해온 김순실, 박명월, 김경희, 리영옥동무를 비롯한 조립직장의 녀성종업원들,

이들은 가정보다 공장을 먼저 생각하고 한 자식의 어머니이기전에 온 나라 학생들의 어머니가 되여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을 지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를 굳건히 지켜가고있었다.

학생소년들의 심리에 맞으면서도 쓰기 편리한 필기도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사색과 열정을 다 바쳐가는 4.15기술혁신돌격대 김정혁, 최순철, 김창국동무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

참으로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을 더 활짝 꽃피우려는 충정의 마음이 곳곳마다 비껴있는 공장이였다.

우리는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수지연필들이 전시된 제품전문실에도 들렸다.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달라도 수지연필들에는 꼭같은 이름이 새겨져있었다.

《첫 의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속 첫자리에 무엇이 자리잡고있었는가를 뚜렷이 새겨주는 글발이였다.

공장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수지연필을 받아쥔 평양초등학원 원아들이 감격에 넘쳐 한자한자 써나가던 글줄이 안겨왔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본사기자 리신향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 질좋은 수지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대를 이어 걷는 애국의 길

신의주시영화보급소 로동자 안명옥동무

조국이라는 거목이 무성한 아지와 푸른 잎새를 한껏 펼치려면 애국이라는 수천수만의 뿌리가 땅속깊이 뻗어내려야 한다. 사회와 집단,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는 신의주시영화보급소 로동자 안명옥동무도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여 어머니조국을 떠받들고있는 훌륭한 사람들중의 한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40대의 수수한 녀성인 안명옥동무가 걸어온 길에는 애국헌신의 자욱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건설장지원사업에 앞장서온 그는 신의주역전광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모실 때에도 야간지원돌격대원이 되여 충정의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왔다. 지난해의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도 그는 높은 공민적자각과 뜨거운 혈육의 정을 안고 누구보다 앞장섰다.

누가 보건말건 애국의 한길만을 걸고 또 걸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달리는 살수 없게 하는 사연이 간직되어있다.

몇해전 어느날 안명옥동무의 5남매는 아버지의 병이 위급하다는 련락을 받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왔다. 어느 한 목장에서 탕일군으로 일하다가 년로보장을 받은 아버지가 혼수상태로 침상에 누워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흐려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었다.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는 참된 사람이 되거라.》

흐려지는 의식속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삼가 우러르는 아버지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그날 안명옥동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마음속절심을 다졌다.

(조국을 위해 후회없이, 부끄러움없이 한생을 살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것인가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안명옥동무의 아버지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어느 한 파수일군협의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품 결에도 뵈옵고싶던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강령적카르치심을 받은 그 영광을 아버지는 한생토록 잊지 않았고 자식들에게도 늘 들려주었다.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보답의 한길만을 걸어온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부지런히 짐짐승을 길러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앞장섰으며 해마다 봄철이면 삼태기와 활삽대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을 마련하여 주변농장들에 보내주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나라를 위한 일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참된 넋을 심어주었다.

아버지처럼 살리라,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대를 이어 하리라는 굳은 결심이 안명옥동무의 가슴속에 이렇게 굳건히 자리잡았다.

신의주시에 육아원, 애육원이 새로 일떠설 때에도 안명옥동무는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는 하루일을 끝마치고 밤늦도록 건설장에서 모래와 자갈을 날랐고 뙤약볕이 내려쪼이는 무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오이랭국을 안고 달려가 건설자들의 더운 땀을 식혀주었다.

안명옥동무는 언제나 아버지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자식들도 애국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었다.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알고있는 딸 소영이와 아들 주성이는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였으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도 힘껏 지원하였다.

오늘도 안명옥동무는 조국을 받드는 뿌리가 되여 애국의 가풍을 더욱 빛내이며 변함없는 헌신의 길을 걷고있다.

본사기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이란특명전권대사 연회 마련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쎄예드 모흐센 에마디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24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리용호외무상,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고등교육상인 태형철 조선이란친선의원단 위원장,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류명선, 심국룡,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이란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쎄예드 모흐센 에마디 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탄생일인 광명성절을 경축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 마련해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이란인민은 조선과의 쌍무관계를 매우 중시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리용호외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이란의 벗들이 우리 인민과 함께 광명성절을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흠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영원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란의 고위지도자들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민은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였으며 존경하는 쎄예드 알리 카메네이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각하와 하싼 루하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축원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나미비아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김창렵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6일 하게 게인고브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하게 게인고브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이 나미비아정부와 인민의 위업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란다.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계속 좋게 발전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이신작칙의 산모범으로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보수분조 분조장 김영남동무

단천시 장내협동농장 보수분조 분조장 김영남동무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모든 사업을 통이 크게 전개해나가는 실천가형의 초급일군이다.

제대되여 고향에 뿌리를 내린 그는 분조장사업을 시작한 그날부터 농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는 사업에 온갖 지혜와 정열을 바쳐갔다.

그는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의 산모범으로 분조원들을 이끌어나갔다.

애로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그는 군인기질, 군인본때로 분조원들과 힘을 합쳐 하나하나 해결해나갔다.

김영남동무와 분조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짧은 기간에 분조의 전물과 작업장들이 번듯하게 꾸려졌다.

분조장동무는 농장적으로 제기되는 보수작업대상들도 분조원들을 발동하여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성하였으며 분조원들의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이신작칙의 산모범을 보이면서 분조를 이끌어나가는 그를 농장원들은 누구나 존경하며 따르고있다.

로농통신원 원기연

장자산마루에 울려퍼진 신념의 메아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조선청년운동은 수령님들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며 우리의 청년강국은 수령님들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 일떠선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입니다.》

자강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새 세대들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도안의 모든 청년동맹조직들이 청년들을 당과 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청년전위로, 청년강국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준비시키는 사업을 틀어쥐고 여기에 힘을 넣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얼마전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강계시 청년대학생들의 장자산에로의 눈길행군과 참관사업을 조직하였다.

시안의 청년대학생들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그려보시며 심신 두그루의 잣나무가 푸르러 설레는 장자산혁명사적지를 향해 일제히 눈길행군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생이 어려있는 붉은기를 세차게 휘날리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 의지에 넘쳐 장자산기슭이 떠나갈듯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터치였다.

청년대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영상작품들이 모셔져있고 소중한 사적물들이 전시된 장자산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던 력사의 집과 학습터, 군사놀이터를 비롯한 장자산혁명사적지의 여러곳을 돌아보며 어리신 나이에 벌써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친품을 지니고계신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와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청년대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전화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시며 열심히 학습하신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책상과 학용품, 시간표 등 혁명사적물들을 둘아보며 불멸의 력사를 더욱 깊이 체득하였다.

참관을 마친 청년대학생들은 대학별예술공연과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이날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답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맨 앞장에서 충정으로 받들어갈것을 굳게 맹세하는 청년대학생들의 심장의 목소리가 장자산마루에 메아리치며 울려퍼졌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어려있는 장자산을 언제나 가슴에 새겨안고 조국땅 그 어디에가도 경애하는 원수님과 숨결을 같이하는 신념의 동지, 청년영웅이 될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특파기자 김순홍

제32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2차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였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건축, 도시경영, 국토환경, 건설공학, 건설경영, 건축재료, 건설기계, 정보공학분과로 나뉘여 발표회 및 전시회, 새 기술교류형식으로 진행되였다.

대학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지난해를 건설의 대번영기로 빛내이는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축전기간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과 나라의 건축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190여건의 과학기술제안들이 출품되였으며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세포지구축산기지 세포군 성산리소재지대상건축형성설계와 시공》,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겨울철공사를 위한 선진공법과 콩크리트청가제의 도입에 대한 연구》, 《화강석세척후 변색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만경대소년단야영소정원계획》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료들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축전에서는 건축대학, 건설공학부와 6명의 교원, 연구사들이 내놓은 제안들이 각각 1등으로 평가되였다.

24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우리 나라 보통강녀자롱구팀과 중국 강소성녀자롱구팀 친선경기 진행

우리 나라 보통강녀자롱구팀과 중국 강소성녀자롱구팀사이의 친선경기가 24일 청춘거리롱구경기관에서 진행되였다.

김일국체육상, 우리 나라 롱구협회 부위원장인 리길성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과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경기를 관람하였다.

경기에서 랑림선수들은 재치있는 빠름기와 중장거리던지기, 속공과 롱림넣기 등 다양한 롱구동작들을 잘 보여주었다.

독자의 편지 아름다운 꽃망울들

지난해 9월 9일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던 날 저의 가정에 류다른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함흥시 성천강구역 성남소학교 조원석, 장청아학생들이였습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영예군인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며 싱싱하고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안겨주는 기특한 학생들앞에 코마루가 찡해났습니다. 제가 젖어드는 목소리로 정말 기특하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일어나앉으려 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영예군인할아버지, 가만히 누워계세요. 누워서 우리들의 노래를 들어주세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성의껏 준비해온 노래들을 불러주는것이였습니다. 밝고 명랑한 그 모습을 보며 비록 나이는 어려도 마음은 어리지 않은 미더운 새 세대가 자라고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은 젖어들었습니다.

조국보위초소에 섰던 저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바로 이처럼 구김살없이 씩씩하고 명랑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위대한 수령님들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경륜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온 나라 어린이들을 자애로운 사랑의 한품에 안아 강성조선의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큰절을 삼가 드립니다.

함흥시 동흥산구역 새별동 특류영예군인 김 철

일요일에 진행될 체육경기

26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 경기기관에서 교예체조 남, 녀 1급경기가 진행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

인권범죄자들의 모략소동은 용납될수 없다

최근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가 비상히 강화되는데 질겁한 남조선괴뢰들이 비렬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괴뢰들은 우리의 《인권》에 대해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조국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지르고 달아난 인간쓰레기들을 대상으로 《북인권실태》를 조사한다 어쩐다 하고 북닥소동을 피우다 못해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해칠 범죄적흉계를 또다시 드러내고있다. 얼마전에도 괴뢰들은 그 무슨 《북인권정책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누구의 《인권증진》을 운운하면서 그를 위한 《자문위원회》라는것까지 조작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추태는 오히려 반공화국대결정책의 풍지박산으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반역무리의 가긍한 몸부림만을 낱낱이 드러내보일뿐이다.

괴뢰패당이 기를 쓰고 매달리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는 총파산의 운명에 직면한 동족대결정책을 어떻게 하나 합리화해보려는 흉악한 기도가 깔려있다. 다시말하여 박근혜역도가 물러나더라도 대결정책만은 계속 유지하면서 필수에 찬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겠다는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특대형추문사건과 함께 극악한 인권범죄자로서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 괴뢰들이 흑백을 전도하는 그따위 서툰짜리 모략극으로 그 누구를 놀래워보겠다는것은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인권》의 간판을 걸고 감행되는 역적패당의 도발적인 모략소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은 진정한 인권문제와 하등의 인연도 없다. 거기에는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는 범죄적목적만 있을뿐이다.

박근혜역도가 집권초기부터 반공화국핵소동과 함께 《인권》 모략소동에 피를 물고 매달리면서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필수에 찬 북침야망을 드러낸 사실은 잘 알려져있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전략을 그대로 본딴것이다. 괴뢰들은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민들의 신념을 흔들어놓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쳐보려고 발광하고있다. 역적패당은 그 누구의 《선혜로기》를 구실로 북남사이의 모든 접촉과 대화, 협력사업들을 차단해버렸는가 하면 국제무대를 싸다니며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외세와의 공조로 우리를 어쩌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였다. 그러나 대결광들의 무모한 도발적망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적대세력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받아나가는 선군조선의 드센 기상과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앞에 미국과 괴뢰패당의 온갖 대결소동은 물거품이 되여버렸다.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허황성은 최근 박근혜역도를 탄핵국면에로 몰아간 특대형추문사건을 통하여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특로된바와 같이 청와대마녀는 선무당의 얼빠진 《북풍》설까지 그대로 저들의 대결정책에 반영하고 온갖 모략소동을 일삼았다. 미국과 야합한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조작의 돌격대로 나서는것도 모자라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북인권법》과 《북인권기록센터》, 《북인권재단》을 내오는 등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근에도 괴뢰들은 조국을 반역한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모해하기 위한 날조자료들을 꾸며내고 그것을 여론화하는가 하면 어중이떠중이들을 긁어모아 새로운 모략단체들을 만들어내고있다. 그 목적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다. 다 기덥이 난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불에 빠진자 지푸래기잡는 격의 무질없는 망동이다.

괴뢰들이 아무리 《인권》이니 뭐니 하며 갖은 비방중상에 열을 올려도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인 우리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는다. 모략에 이골이 난 괴뢰패당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적기를 부릴수록 그것은 인권유린왕초, 특대형인권범죄집단으로서의 저들의 더러운 정체만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괴뢰들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매달리는것은 저들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도탄에 빠진 남조선사회의 험악한 인권실태를 가리우고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 끼치가는 잔명을 부지하기 위한 비렬한 망동이다.

인민을 멸시하고 인간의 모든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괴뢰들의 반역정책은 철저한 반인권정책이다. 인민들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는 박근혜역도의 집권기간 미국에 의한 남조선의 식민지예속화는 더욱 심화되였다. 괴뢰들이 수많은 농토와 산림을 미국의 군사기지, 전쟁연습장으로 서슴없이 떼맡기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언제 집과 생명을 잃을지 모를 위험속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다.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이 《싸드》배치놀음을 강행하고있는것도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인민들의 생명안전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극악한 반인륜적행위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백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참사, 때남기농민사망사건 등 박근혜패당의 반인민적악정과 《유신》독재부활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날에날마다 빚어지는 참상들은 그대로 인권유린의 진렬장과도 같다.

박근혜역도가 집권하면서 남조선은 《자살왕국》, 《인권유린의 표본지대》로 더욱 전락되였다. 남조선에서는 인권의 초보인 생존의 권리, 로동의 권리, 배움의 권리를 짓밟는 악법들이 차고넘치는 속에 살아갈 앞날을 포기하고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그 주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잘 말해주고있다. 지금 남조선 전지역에서 힘차게 벌어지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투쟁은 온갖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을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울분의 폭발이다.

남조선을 최악의 인권페허지대로 만들어놓고 인민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고있는 극악한 인권유린자들이 주제넘게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걸고드는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괴뢰들은 이미 인권을 론할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다. 그들이 꼬물만큼이라도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저들의 엄청난 반인권적죄악부터 털어놓아야 한다. 전대미문의 반역정치로 온 남조선을 인권말살의 생지옥으로 전변시킨 박근혜패당을 하루빨리 준엄한 심판대에 끌어내야 마땅하다.

괴뢰들이 참다운 권리,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초불민심에 억행하면서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으로 저들에게 쏠린 여론을 딴데로 돌리려고 하는것은 실로 파렴치성의 극치이다.

모략군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달을 보고 짖어대는 미친개처럼 제아무리 반공화국모략선동에 열을 올려도 인권범죄자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는 절대로 감출수 없다.

인권유린의 왕초, 대결미치광이들인 괴뢰역적패당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속에 가장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라 영 국

구걸병자의 역스러운 추태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에 혼비백산한 괴뢰패당이 《대북제재압박공조》를 비러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앞장에 구걸병자로 소문난 괴뢰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서있다.

얼마전 도이췰란드를 행각한 역도는 미일상전들과 함께 불순한 대결모의판을 벌려놓고 우리의 핵억제력강화조치를 악의에 차서 헐뜯으면서 그 무슨 《해로기》니, 《유엔결의준수》니 하는 잠꼬대같은 나발만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삭은 바자구멍에 노란개 주둥이 내밀듯 여기저기에 코를 들이밀고 《지금이 북의 핵무장을 저지할수 있는 마지막기회》라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고아대면서 국제적인 《북핵공조》를 간청하였다.

윤병세가 잠시라도 헤픈 입을 다물고 동족을 헐뜯지 못하면 몸살을 앓는자라는것을 모를 사람은 없다. 지구를 뒤흔든 우리의 불뢰성에 화들짝 놀라 궁둥이에서 비파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히 싸돌아치며 외세에게 《대북제재압박공조》와 동족압살을 극구 애걸복걸하는 이자의 처사는 그야말로 때와 장소도 분간 못하고 추태를 부리는 대결병자의 역스러운 몸불견이 아닐수 없다.

원래 빈깡통이 소리가 더 나고 쫓기는 개가 요란히 짖는 법이다. 우리의 자위적조치에 질겁한 괴뢰들이 범본 할미 창구멍 틀어막는 격으로 구린내나는 외세의 사타구니에 달라붙어 반공화국압박공조를 구걸하는것은 실로 카소름기 그지없다.

괴뢰들이 우리에 대한 압박강화와 국제사회의 유엔 《제재결의》 리행을 극구 애걸하고있는것은 오히려 저들의 반공화국대결공조체제가 거덜이 나고 맥을 추지 못하고있다는 뚜렷한 반증으로 될뿐이다.

괴뢰패당이 《북의 핵, 미싸일능력고도화》를 부르짖으며 외세와 함께 《대북제재압박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떠드는것자체가 자기기만이다. 그럴수록 우리의 자위적억제력이 비상히 강화되는데 바빠난 저들의 초조감과 불안, 위약성만 더욱 부각시킬뿐이다.

털어놓고말하여 지난 수십년동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의벌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전대미문의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에 미쳐날뛰였지만 도대체 얻은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섰다.

지난해에도 미국과 괴뢰역적패당은 로악무도한 고강도 《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몇개월안에 그 《효과》가 발생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무슨 큰일이나 친듯이 피줄을 추어올렸다.

그러나 우리는 자력자강의 힘으로 원쑤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였다.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에서의 완전성공으로 주체적핵무력건설에서는 경이적인 성과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났다. 얼마전 우리가 시험발사에서 완전성공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은 또 하나의 위력한 핵공격수단이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완전히 실패하였다는것은 구태여 더 론할 여지가 없다.

지금에 와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그 누구의 《해로기》니, 《유엔결의준수》니 하는 떠빠진 나발을 불어대고있는것은 결국 저들이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비상히 강화되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을 막아낼수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사태대국과 동족대결에 환장하면 그렇게 사고력과 판단력이 결여되기마련이다. 동족을 헐뜯는데 미쳐돌아가는 윤병세따위의 허튼수작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극악한 대결광신자들이 외세의 옷자락에 매달려 거덜이 난 《대북제재압박공조》를 부지해보려고 단말마적으로 몸부림치고있지만 그것은 내외의 조소만을 자아낼뿐이다.

개는 짖어도 행렬은 간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침략기도를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압살을 노린 제재와 봉쇄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려는 윤병세와 같은 매국역적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심 철 영

초불의 요구는 박근혜퇴진과 구속, 공범자처벌

남조선단체 48시간 비상행동돌입 선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3일 서울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탄핵, 구속! 특검연장! 48시간 비상행동》에로의 돌입을 선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지금 박근혜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간계가 란무하고 범죄비호세력의 민주주의파괴선동이 계속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때문에 초불국민은 여전히 한마음으로 광장을 채우고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박근혜퇴진과 구속, 공범자처벌을 통해 《헬조선》을 바꾸는것이 초불의 요구이고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탄핵을 앞두고 더 큰 승리에로 나가기 위해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게 된다고 하면서 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4년전 박근혜의 취임일이였던 25일과 《헌법재판소》의 최후변론이 예정된 27일을 박근혜탄핵과 퇴진의 날로 확정하기 위한 비상행동이다.

지금은 초불의 힘을 더 크게 모아야 할 때이다.

특검수사기간은 반드시 연장되여야 하며 이것은 박근혜구속과 공범자처벌, 적폐청산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황교안은 퇴출시켜야 하고 《국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특검법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23일과 24일 일터와 학교, 거리를 가리지 않고 100어곳에서 비상행동을 진행한다.

25일 17차 초불항쟁에 모두 함께 하자고 호소할것이다.

박근혜탄핵과 구속, 특검연장이라는 초불의 요구로 뒤덮을것이다.

25일 광장은 다시 초불로 채워지고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신속한 탄핵심판을 념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질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초불은 부패하고 낡은것을 부시며 앞으로 나아간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특검수사기간연장과 조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하며 《정부》 종합청사와 《헌법재판소》에로의 행진으로 비상행동을 시작하였다.

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이 여기에 합세하기로 하였다 한다.

박근혜탄핵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인민들

역적패당은 그 어떤 단말마적발악으로도 파멸에로 기울어진 운명을 건질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지난해 초겨울부터 남조선전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의 초불은 온갖 불의를 모조리 불태워버릴 거대한 활화산이 되여 무섭게 치솟고있다.

박근혜년과 그 패거리들은 각계층의 초불투쟁이 날로 더욱 확대고조되고 최후심판이 박두해오자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남조선언론보도에 의하면 격노한 각계층 민심의 추상같은 기세에 떠밀리운 《헌법재판소》는 얼마전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최단기일안에 결속하려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당황망조한 청와대와 고용변호인단패거리들은 그 무슨 《충분한 심리》와 《공정성》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을 연기해야 한다고 생떼를 쓰는 한편 변호인단전원의 사퇴도 불사할수 있다느니, 박근혜가 재판정에 직접 나가 진술할수도 있다느니 하는 억지와 키만숱수, 협박 등 온갖 잔꾀를 다 부리면서 어떻게 하나 탄핵재판을 지연시키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지어 극우보수떨거지들을 내몰아 박근혜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저항본부》라는것까지 조작하고 맞불집회란동을 부리게 하여 서울장안을 불망나니들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고있다.

그런가하면 박근혜년과 결탁된 《자유한국당》것들은 특대형추문사건의 공범으로서의 본색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면서 특검수사기간연장을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하고 박근혜는 죄가 없다느니,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느니 하고 제처대며 말아오른 탄핵여론을 누그러뜨려보려고 각방으로 획책하고있다.

박근혜역적무리들의 이러한 단말마적인 발악소동이 대세를 돌려세울수 없는 어리석고 부질없는짓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민심의 비림을 받고 궁지에 몰려 덩떵바우기와 같은 서툰짜리 변신극을 펼쳐놓으며 제 살구멍을 찾느라 허우적거리는 《자유한국당》패거리들과 제머리를 떨며 력건사도 제대로 못하는 늙다리보수떨거지들이나 부추겨대고 탄핵기각여론이나 내돌린다고 하여 과연 저지른 죄악이 덮어지고 사태가 역전될것 같은가.

박근혜역도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극도의 반감과 증오는 어제오늘에 비로소 생겨난것이 아니다.

남조선전역을 무섭게 휩쓸고있는 전민항쟁의 불길은 파쑈독재와 반인민적정책,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을 일삼아온 박근혜역적패당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년과 그 공범자들은 죄의식은커녕 저들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계속 떨대여왔으며 청와대 뒤골방에서 매일과 같이 모의판을 벌리고 증인들을 늘여 추가신청한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 하며 발버둥치다 못해 억도년의 숨통이 끊어질 시각이 닥쳐오자 분별을 잃고 발광하고있다.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역적패당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써먹는 상투적인 수법그대로 탄핵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파대를 돋구어 우리를 걸고들며 《종북》광증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청와대의 사촉을 받은 《자유한국당》의 박근혜졸개들은 보수단체들의 초불반대집회에 참가하여 《종북세력에 의해 탄핵정국이 조성되였다.》, 《종북좌파세력을 척결하자.》고 선동해대는가 하면 극우보수광신들은 《헌법재판소가 종북세력에게 점령당했다.》, 《간첩들이 초불집회에 끼여들었다.》, 《박근혜대통령을 반대하는것들은 다 북의 지시를 받는 빨갱이들이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으로 쏴죽여야 한다.》는 폭언까지 서슴없이 줴쳐대며 광기를 부리고있다.

현실은 역적패거리들이 찍하면 《남남갈등》이요 뭐요 하면서 그것을 민족적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동족의 성의있는 제의를 외면하는 구실로 내돌고있지만 실지로 남조선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저들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주범은 다름아닌 박근혜패당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근혜패거리들의 꼬락서니야말로 미친개도 죽을 때는 똥을 싸갈기고 죽는다는 격언을 방불케 하고있다.

분분초초 더러운 땅이 꺼져가는 숨가쁜 속에서도 동족대결의 악습만은 버리지 못하고 《종북》을 떠들어대며 악을 쓰고있는 역적무리들의 구차스럽고 역스러운 형태에 어느 누군들 침을 뱉지 않을수 있겠는가.

미친개무리마냥 지랄발광하는 역적패당의 《종북》수작질에 귀를 기울일 속물은 한줌도 못되는 보수떨거지들밖에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우보수패거리들의 탄핵반대란동으로 말하면 무엇이 옳고그른지 판별할 능력도 주견도 없는 한갖 떨거지들이 박근혜, 최순실년들이 먼저주는 푼돈에 목이 매여 부려대는 가련하고 비굴한 추태이며 역적년들이 부정축재한 돈을 받아먹은 범죄자들의 광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죄악을 저지르고도 역스러운 낯짝을 쳐들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고 최후발악하는 박근혜년과 그 패거리들에 대한 남조선각계층과 온 겨레의 분노와 저주는 하늘끝에 치닿고있다.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주로총을 비롯한 투쟁단체들은 보수패거리들의 망동을 짓눌러버리고 역도년을 탄핵시키는 무서운 힘은 다름아닌 각계층의 초불투쟁에 있다고 하면서 초불을 더 세차게 지펴올려 최후발악하는 역적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기세에 넘쳐있다.

각계층 시민단체들과 초불시위참가자들속에서는 만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 그에 동의한 재판관들은 박근혜의 공범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대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격노한 초불대하는 《탄핵결과에 대한 승복》이니 뭐니 하면서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을 우롱하고 모독한 정치권을 강타하게 될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들이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외신들은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남조선은 정치적대혼란과 경제침체의 수렁에서 헤여나지 못하게 될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사태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박근혜의 탄핵은 거스를수 없는 력사의 필연이고 시대의 요구이며 민심의 명령이다.

박근혜년의 비참한 종말은 이미 정해졌으며 보수패당의 종체적파멸은 말리는 필수 없는 숙명이다.

온갖 불의를 불사르고 새세상을 안아오려는 남조선 각계층의 강렬한 지향과 열망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지 못할것이다.

민심에 정의가 있고 민심에 억행하는자들이 갈 곳은 력사의 무덤밖에 없다.

역적패당은 그 어떤 단말마적발악으로도 파멸에로 기울어진 운명을 건질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주체106(2017)년 2월 24일
평 양

간판바꾸기를 통해 본 역적당의 추악한 변신술

환경에 따라 몸색갈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처럼 변신술에 능한 《새누리당》패거리들이 얼마전 또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꾸어달았다. 하지만 그런다고 파멸의 낭떠러지로 정신없이 곤두박질하는 가련한 신세를 과연 면할수 있겠는가. 저들의 운명이 위태로울 때마다 상투적으로 벌리는 그따위 너절한 변신놀음에 남조선민심은 침을 뱉은지 오래다. 간판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세나 바꾸어달았다고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역적당의 정체가 달라질수는 없기때문이다. 파멸을 모면하기 위한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들의 추악한 변신의 력사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죄악의 뿌리-《민주공화당》

《자유한국당》의 조상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공화당》은 무데라로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역도가 독재통치를 위발침하기 위해 조작한것이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며 떠여나왔지만 원체 칼부림밑에 모르는 군사깡패들의 무리인지라 《민주공화당》은 가장 야만적인 파쑈통치로 악명을 떨치였다. 특히 역적당의 제집화된 부정부패악습은 세상사람들을 경악케 하였다. 권력이면 못할것이 없다고 여기는 《민주공화당》패거리들은 너도나도 사기와 협잡,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당시 폭로된 자료에 의하면 박정희역도를 비롯하여 최고위직에 들고앉은 4명이 소유한 개인자산의 액수는 남조선 전체 통화량의 50%이상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해 한 외신이 《남조선의 권력상층부사람으로서 몇백만 지어 몇천만US$를 부정축재한자는 얼마든지 있다. 그렇지 못한자가 오히려 우습다.》고 조소한것도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극악무도한 파쑈통치와 온갖 부정축재로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간생지옥, 부패의 란무장으로 만든 《유신》독재자는 1979년 10월 마침내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그와 함께 죄많은 《민주공화당》도 력사의 오물장에 내던져졌다.

부패로 썩어문드러진 《민정당》

파쑈란무장에 독버섯처럼 돋아난 《민정당》도 도적왕초집단으로 악명떨치였다.

사람들은 《민정당》이라고 하면 《5공비리청문회》를 생각하게 된다. 그처럼 기세등등하던 《민정당》패거리들이 하루아침에 줄줄이 죄인으로 끌려나오고 그 우두머리인 전두환역도가 외진 절간인 백담사로 쫓겨가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은 세상을 경악시킨 부정축재사건이 드러났기때문이였다.

당시 전두환의 일가족속들의 폭법부정축재집단과 《민정당》패거리들의 권력형대사기집단의 부패행위는 민심을 격노케 하였다. 전두환역도가 뚫적한 부정자금만도 남조선로동자의 무려 25만년분임금에 해당한것이라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온 남조선땅은 매일과 같이 터져나오는 특대형부정부패사건들로 들썩이였고 《민정당》은 돈으로 선거를 하고 돈으로 정치를 한 도적무리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결국 부패한 돈으로 배를 불리며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민정당》은 수치스러운 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추악한 사생아-《민자당》

갖은 추문으로 얼룩진 《민정당》간판을 가지고서는 장기집권을 할수 없다는데로부터 보수떨거지들은 《보수대련합》의 미명하에 김영삼의 《통일민주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끌어안아 《3당합당》이라는 신파극을 연출하였다.

권력탈취를 위해 서슴없이 치른 그 너절한 《정략결혼》의 결과물이 바로 《민자당》이였다. 어중이떠중이들을 끌어들이자니 시작부터 메수놀음이였다.

당시 《민정당》 총재였던 로태우역도는 《합당》의 대가로 야당총재들이였던 김영삼과 김종필에게 거액의 돈을 넘겨주었다.

김영삼역도가 집권이후 맨 먼저 벌려놓은것이 《민자당》간판을 《신한국당》으로 바꾸는 놀음이였다.

《과거의 부끄러운 력사를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벌려놓은 놀음이였지만 역적당의 반역과 부패체질에서는 꼬물만큼도 달라진것이 없었다.

독사는 허물을 벗어도 독사인것이다. 성수대교가 끊어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등 대형참사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 김영삼역도이하 도적패거리들이 부정축재와 향락에만 열을 올리다나니 정치는 란장판이 되였고 사회는 혼란에 빠졌다.

부패한 정치는 가뜩이나 위악하던 경제까지 싹 망쳐놓았다.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부정사건》으로 불리운 한보그룹사건, 김영삼역도가 제 아들을 통해 은행들에 압력을 가하여 년간 세금징수액의 14%에 해당한 막대한 자금을 한보그룹에 부정대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아먹은 이 사건의 여파는 남조선에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몰아왔다. 도적왕초 김영삼은 이 사건때문에 《대국민사과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고 제 아들까지 감옥으로 보낸 수치스러운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항간에서 김영삼역도의 《신한국당》을 《신한국당》이라고 야유조소하였겠는가.

추방령을 받은 《딴나라당》

오만가지 죄악의 대가로 야당의 신세로 굴러떨어질 운명에 처한 역적당이 이지러진 영상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내든것이 《한나라당》간판이다.

《한나라당》것들은 총파산직전에 몰린 가긍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편으로는 낡은 정치세력이 정치무대에서 《자진퇴장》한다 어쩐다 하면서 부산을 피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한 정치문화청산》이니, 《신뢰를 받는 건전한 보수》니 하며 저들이 《합리적인 혁신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난듯이 요란스럽게 광고하였었다.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차떼기당》, 《부패정당》의 오명을 씻는다고 하면서 서울 여의도에 있던 덩지큰 당사를 내놓고 한지에 《천막당사》를 치고 《당무》를 보는 정치사기극도 연출하였다.

하지만 제 버릇 개 주겠는가. 간판만 바꾸어달았을뿐 역적당의 반역기질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족속들에게서 풍긴 부정부패의 악취는 인민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였다.

역적배들은 마피아도 낯을 붉힐 파렴치한 수법으로 기업들을 협박하여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정자금을 빼앗아 항진하였다. 그 수법이 얼마나 혐오스러웠으면 줄곧 《한나라당》의 편역만 들던 보수언론들까지도 《최소한의 도덕이나 양심이라도 가진 정당인가.》, 《마피아도 낯을 붉힐만큼 로골적이고 저질스럽다.》고 비난했겠는가.

일신의 향락과 부귀영화를 위해서라면 땅덩어리도 제부도 지어 민족의 리익까지 송두리째 외세에 팔아먹은 추악한 매국노들의 무리, 《딴나라당》에 남조선인민들은 단호한 추방령을 내리였다.

지저분한 잡새둥지-《새누리당》

5년전 《한나라당》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민심의 혐오감때문에 닥쳐온 《국회》의원선거조차 치를수 없는 궁색한 처지에 빠져있던 보수패당이 어쩔수 없이 벌려놓은것이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놀음이였다. 이것은 《한나라당》간판을 가지고서는 위기를 수습할수 없고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다음기 《대통령》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에게 참패를 당할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한것이였다.

보수패당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그 무슨 《완전히 새로운 당》이니, 《친근감을 주는 이름》이니 하고 광고하며 역겨운 추태를 부리였다.

그러나 당명개정에 관한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인터네트에는 《뭘 더 새롭게 누리겠다는것인가.》, 《온갖 잡새가 날아들어서 새누리당인가.》, 《굳이 새로 짓겠으면 새누레기당이라고 하라.》 등의 야유글들이 폭로처럼 붙어졌다.

이후의 사태는 민심의 평가가 정확하였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실증해주었다.

외세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하고 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려던 청와대악녀는 세계를 뒤흔든 최악의 추문사건으로 산송장이 되였고 《박근혜의 사당》인 《새누리당》도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였다.

당연한 귀결이다.

※ ※

《자유한국당》의 죄악에 찬 족보는 이 역적당에 더이상 기대할것도 지켜볼것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추악한 역적배들이 간판바꾸기놀음으로 잔명을 유지하고 새집권의 개꿈을 실현해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지만 부질없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 회세의 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리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진보적인류가 칭송하는 천하제일명장

오늘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끊임없는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주체의 핵강국으로서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진보적인류는 조선을 사회주의보루로, 희망의 등대로 동경하고있다. 이 경이적인 현실은 천하제일명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기 말엽은 우리 조국에 있어서 참으로 엄혹한 시련의 시기였다.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와 페르샤만전쟁에서의 《승리》에 도취된 미국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종말은 시간문제》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봉쇄, 군사적위협책동에 열을 올렸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가 저들의 공세앞에 겁을 먹고 스스로 물러나앉을것이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오산하였다. 조선은 붕괴된것이 아니라 더욱 굳게 단결되였으며 사회주의붉은기를 높이 추켜들고 력사의 광풍을 헤치며 힘차게 전진하였다. 《조선붕괴설》을 공공연히 내들리며 기고만장해있던 제국주의세력은 우리와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련전련패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시련과 난관을 억세게 이겨내면서 날에날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어떻게 되여 조선이 적대세력의 횡포무도한 도전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날로 승승장구해나가고있는것인가. 누구나 이런 의문을 품고 조선의 힘의 원천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 고심하였다. 세상사람들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명장으로서의 풍모를 완벽하게 체현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에서 대답을 찾았다.

당시 한 외국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는 사회주의조선이 쉬하고있는 제국주의에 대한 강경자세에 경탄하고있으며 그 힘을 부러워하고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조선인민이 천출명장이신 김정일각하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시고있는데 있다. 이것이 조선인민에게 승리에 대한 신심과 용기, 힘을 북돋아주고있다.》

이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였기에 언제나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사회주의위업을 확고히 고수하며 끊임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었다.

력사의 그 어느 시대에나 명장이 있었고 그들은 각이한 공적을 쌓았다. 그것으로 하여 당대의 명장들은 사람들의 추억속에 후세에 전해지고있다. 하지만 력사는 우리 장군님과 같이 그처럼 위대한 선군령장을 알지 못한다.

예로부터 싸우지 않고 이기는것이 진짜승리라고 일러왔다. 하기에 쌍방간의 정치군사적대립이 극도에 이르러 전쟁과 다름없는 첨예한 대결상황이 조성된 속에서도 총소리 한방 울리지 않고 승리만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경탄과 흠모의 목소리는 끝이 없다.

당시 유럽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현시대의 명장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전쟁에서 이길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였을뿐아니라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리익을 지키고 전쟁을 방지할줄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를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이시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라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심을 토로하였다.

명장의 슬하에는 약졸이 없는 법이다.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범한 령군술로 우리 혁명무력을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선도해나가는 불패의 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진정 싸울수 있는 군대, 싸워서 승리할수 있는 군대를 보려거든 조선에 가보라. 군민일치도 좋고 관병일치도 좋다. 더욱더 좋은것은 령도자를 중심으로 당과 군대가 혼연일체를 이룬것이다. 이러한 군대가 싸워서 이기지 못할 적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은 인디아신문 《싸마챠르 포스트》에 실렸던 글의 한 토막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장력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군인대중이며 그들의 정신도덕적풍모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 독창적인 군사원리를 밝혀주시고 그것을 군건설에 철저히 구현하심으로써 최고사령관과 장병들사이의 관계를 령령과 복종의 관계를 초월한 사랑과 의리의 관계, 어버이와 자식간의 혈연의 관계로 승화시키시였다. 이에 토대하여 군대를 혁명위업수행의 핵심력량,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독창적인 령도방식,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시였다. 조선의 백승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것이다.

언제인가 서방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조선이 서방과의 대결에서 승리만을 거두어올수 있은것은 바로 군대라는 기둥을 잘 세웠기때문이다. …만약 서방의 책략가들이 조선을 약한 상대로 오인한다면 파멸적인 재난을 피할수 없을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은 이 세상 모든 령장들을 다 합쳐도 따르지 못할 최고높이의 군사정치적자질과 품격, 지략과 용병을 지니신 희세의 천출명장이시다.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흠모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것이다.

본사기자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불세출의 위인

세계정치사에 위대한 장군님처럼 특출한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통찰력, 견인불발의 의지로 자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불세출의 위인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총대철학을 내놓으시고 선군을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하기에 김정일각하회고 오스트리아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고귀한 생애를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본다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하신 비범한 사상리론가, 걸출한 령도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온갖 책동속에서도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신 강철의 령장,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고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칭송하였다.

로씨아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로씨아인민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김정일동지를 잊지 못해하고 있다.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에 의하여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나라의 진정한 자주와 독립을 이룩하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는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걸으시였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시대와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기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생명체로 결합된 일심단결을 이룩하시고 조선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정일각하는 조선의 강성번영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의 선군혁명령도와 애국애민의 헌신에 의하여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진보적인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대원수께서 심화발전시키신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구현된 조선의 사회주의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도이췰란드공산당 위원장과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위원장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고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헌신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비단 이들만이 아닌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워하며 그이께서 인류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있다.

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원준

우리 나라 대표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 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연설

우리 나라 대표가 최근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년례회의에서 연설하였다.

대표는 본회의에 제출된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 보고서(A/RES/71/146)에 류의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인류공동의 지속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평화와 안전은 유엔의 더없는 핵심사명으로 되고있으며 유엔헌장은 국제분쟁문제들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는것을 유엔활동의 주되는 목적으로, 주권평등의 원칙과 주권국가들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삼가할데 대한 원칙을 기본활동원칙으로 견지할것을 규제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특정한 국가들에 의해 유엔헌장이 완전히 무시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이 계속되고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제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헌장은 유엔안보리사회가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맞게 행동할것을 규제하고있지만 안보리사회의 시대착오적인 구태와 전건은 계속되고있다.

리사회가 특정국가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추구를 위한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유엔의 이름을 띤 제재조치들이 망랑 채택되고있으며 이것이 곧 성원국들에 대한 자주권침해와 제도전복에 악용되고있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복잡한 사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과연 어떤 길로 가고있으며 특정한 나라의 리익에 어떻게 복무하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대표적실례이다.

우리의 핵무력고도화조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자위적조치이다.

이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 주변나라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대륙간탄도로케트 등 여러 종류의 로케트들을 련이어 발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보리사회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시험과 평화적인 위성발사, 정상적인 탄도로케트발사를 아무런 국제법적근거도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매도하고 문제시하는 비법, 불법의 대조선《제재결의》들을 채택하면서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험들에 대해서는 입언반구도 하지 못하는 이중기준의 극치를 연출해내고있다.

유엔헌장과 현존국제법들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유엔안보리사회는 더이상 유엔을 강권과 전횡의 마당으로 도용하는 미국의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안보리사회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민주화를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

미국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한 유엔성원국을 힘으로 전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년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여러차례 벌려놓고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침략전쟁연습이 《유엔군사령부》의 간판밑에 빠짓이 감행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를 조작한 후 오늘에 이르는 60여년동안 유엔의 기발을 들고 남조선에 침략적인 무력과 군사기지들을 유지하는 한편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을 비롯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계속 끌어들이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켜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앞에서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도 적극 기여할것이다고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이 귀중한 말씀에는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근본방도가 담겨져있다.

유엔의 공정한 실제와 명예를 회복하는 견지에서 보나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의 견지에서 보나 《유엔군사령부》는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현실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유엔의 민주화가 하루빨리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대표단은 유엔헌장 및 기구역할강화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자기 사명에 맞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강권과 전횡을 종식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유엔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들을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조선중앙통신】

독도강탈에 환장한자들의 추태

얼마전 일본외상 기시다가 국회외교연설이라는데서 독도가 《일본의 령토》라는 허튼 나발을 또다시 불어댔다. 그는 외상의 자리에 올라앉은 때부터 해마다 이런 망발을 늘어놓고있다.

거짓말을 계속해서라도 독도를 기어이 저들의 땅으로 만들고야말겠다는 심산이다. 그야말로 령토강탈에 환장이 된자의 어리석고 유치한 술책이라고 할수 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계속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집요한 령토강탈책동에 전체 조선민족은 끓어오르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독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사람들에 의하여 개척된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이다. 《삼국사기》, 《고려사》를 비롯한 우리 나라 력사책들에는 이와 관련한 사료들이 히다하게 기록되여있다.

일본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것을 립증하는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있다. 지난해에 공개된 일본의 옛 지도들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이것들은 1888년과 1892년에 당시 일본농상무성의 지질조사소가 간행한 일본제국전도와 일본교과서에 실린 중등교육지도이다.

일본제국전도에는 독도보다 작은 섬에까지 산표시가 되여있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산표시가 하나도 없다.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령토였기때문에 애당초 측량대상에서 제외되였던것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이며 지리교과서 저자였던 야마가미가 집필한 교과서에 실린 아시아지도에는 독도가 일본국경선밖에 놓여있다. 이것 역시 당시 문부성의 검정교과서로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물이다.

독도를 한사코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는 일본반동들의 추태야말로 날강도적행위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근거로 내들고있는것이 바로 1905년에 날조된 《시마네현고시》 제40호이다. 하지만 그것의 조작경위를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다. 어업에 종사하던 한 일본인을 총동일하여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으로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토대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소속으로 귀속시킨다고 꾸며낸것이 이 협잡문서이다.

일본의 독도령유권주장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령토편입조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령토편입조건은 첫째로 지역이 국제법상 주인이 없는 지역이여야 하며 둘째로 주변의 모든 국가에 조회한 다음 그 령유권을 세계에 공개하게 되여있는것이다. 독도로 말하면 주인없는 지역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령토였으며 어느 주변국가도 독도문제를 두고 일본과 합의를 본 일이 없다. 오히려 조선봉건정부가 《시마네현고시》가 조작되기 5년전에 벌써 독도에 대한 령토수속을 하고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라는것을 내외에 명백히 선언한 상태였다.

일본도 이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령토편입이라는 그처럼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고시자체도 도적고양이마냥 한갖 지방관보인 현보에나 게재하고 지방신문인 《산잉신붕》에 이에 대한 소식을 자그마하게 실었던것이다. 일제가 독도의 《시마네현편입》을 조선봉건정부에 통지한것은 《을사5조약》을 날조한 후 4개월이 지나서였다. 외교권을 일제에게 빼앗긴 조선봉건정부가 어디에도 항의할수 없다는것을 면밀히 타산한 교활한 술책이였다. 때문에 전후 일본의 령토처리를 규정한 국제협약들도 일본의 《시마네현고시》 제40호에 의한 독도강탈을 비법으로 인정하고 독도를 일본령토에서 제외시켰던것이다.

독도는 력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조선민족의 불가분리의 령토이다. 어기에는 그 어떤 의문의 여지도 있을수 없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오늘까지도 독도가 저들의 령토라는 미친 소리만 한모양새로 뻐쳐대고있다. 이제는 그것이 도수를 넘어 독도가 저들의 땅이 다 된것처럼 놀아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독도에 성노예소녀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께시마는 원래 일본의 고유한 령토》이기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어느 한 체육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홈페지의 지도 등에 《Dokdo》라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그 무슨 정치선전을 하고있다고 걸고들면서 갖은 삿대질을 다 해대고있다.

보다 엄중한것은 일본문부과학성이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로 못박은 새 학습지도요령해설서라는것을 공개하는 놀음을 벌려놓은것이다.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일본의 소, 중학교들에서 배워주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부과학성이 방향과 기준을 정해준것이다.

새 세대들속에 독도를 《빼앗긴 땅》으로 인식시켜 복수심과 침략사상으로 집들어진 광신자들로 키우자는것이다. 후날 이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독도를 강탈하고 나아가서 전조선을 집어삼키며 대륙에로 진출하여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 바로 이것이 일본반동들이 추구하고있는 최종목적이다.

일본반동들은 개꿈을 꾸고있다.

독도는 어제도 그러했지만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의 신성한 령토로 남아있을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조선민족의 이러한 의지를 똑바로 보고 부질없는 령토강탈야망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안철권

북침전쟁도발을 노린 무모한 망동

오는 3월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작당하여 조선반도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올해 합동군사연습은 력사상 최대규모라고 알려졌던 지난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서 감행된다고 한다.

벌써 핵항공모함 《칼빈손》호가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도착하였다. 미국은 이번에 장거리전략폭격기 《B-52》, 초음속전략폭격기 《B-1B》, 스텔스폭격기 《B-2》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수단들을 대량 투입하려 하고있다.

핵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를 포함한 타격전단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서 항시적으로 기동시키고있는 미국이 또다른 항공모함전단을 추가로 들이민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 아닐수 없다.

응근 하나의 핵전쟁을 치르고도 남음직한 침략무력이 동원되는것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있다.

미국이 벌려놓으려는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의 자주권을 짓밟고 공화국북반부를 침략하기 위한 엄중한 핵선제타격연습이며 조선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가장 로골적인 핵전쟁도발행위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핵전쟁의 불씨를 안고 체계적으로 확대강화되여온 북침핵시험전쟁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통해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에로 신속히 전개하고 련합작전태세를 갖추는것을 총체적으로 점검, 완성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종심과 중요거점들에 대한 핵선제타격능력을 숙달해왔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서 처음으로 《싸드》배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를 활용하기 위한 훈련과 공화국북반부를 정밀핵타격수단들로 선제공격하기 위한 《4D작전계획》을 적용하려 하고있다.

사태는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얼마나 모지름을 쓰고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원래 상대방을 도발자로 몰아 침략전쟁을 일으키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우리에게 도발자의 감투를 뒤집어씌우고 저들은 마치도 방어를 위해 노력하는것처럼 국제사회에 인식시키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이 입버릇처럼 외워대고있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라는것은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을 핵선제공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수많은 미군무력을 남조선에 계속 붙박아놓고있는것이 조선반도에서 또 한차례의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있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미국이 저들의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책동을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 《방어력유지》를 위한것이라고 떠드는것은 철면피한들만이 웨칠수 있는 날강도적인 궤변이다. 미국의 나발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쉽사리 지역밖의 넓은 범위에로 확대되게 된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이고 핵무기와 핵시설들이 밀집되여있어 핵화약고나 다름없는 남조선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질을 하려는 미국이야말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다.

세계는 조선반도에서 도발자, 평화의 파괴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고있다.

미국이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불아오고있는 오늘의 준엄한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한것이 얼마나 정당한 선택이였는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예로부터 칼로 세운 나라는 칼로 정복할수 있어도 강의한 정신력으로 세운 나라는 칼로 정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현 미행정부는 우리를 너무나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놀아대고있다.

미행정부가 리성을 잃고 우리를 감히 어째보려고 하는것은 한갖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서방의 가치관이나 셈법으로는 도저히 계산할수 없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으로 다져진 총대의 위력이 있다.

핵으로 우리를 어째보려는 침략자들을 핵으로 쳐갈기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우리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였으며 임의의 시각에 마음먹은 장소에 날려보낼수 있는 각종 운반수단들을 가지고있다. 미국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핵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종지부가 찍혔다.

우리의 핵전략타격수단들의 위력에 미국이 항시적인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시대가 펼쳐졌다.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천만군민은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침략자,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해버릴것이다.

라명성

로씨아에서 조국수호자의 날 기념

로씨아에서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에 즈음한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로씨아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모스크바의 크레믈리성벽곁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수상 드미뜨리 메드베제브, 련방평의회와 국가회의 의장들, 대통령행정부 책임자, 국방상을 비롯한 정부성원들, 전쟁로병들, 사회단체대표들이 화환진정식에 참가하였다.

이날 크레믈리에서는 기념음악회가 있었다.

음악회에서 한 연설에서 로씨아대통령은 로씨아의 군관들에게 자기 식의 독특한 군사애국주의가 있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조국수호에 한생을 바쳐가고있으며 바로 이것에 그들의 리상과 명예, 기본가치관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복무에 대한 책임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로 하여 그들이 국가와 사회의 믿음직한 기둥으로 인정받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나치즘을 타승한 승리자의 세대들은 상상할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에 대한 사랑의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었으며 후대들에게 단결이라는 력사적인 교훈을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였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로씨아의 군인들이 제시된 목표를 향하여 억세게 전진하며 새로운 성과들을 거둘것을 호소하였다.

단결만이 분쟁문제해결의 방도라고 강조

이란국회 의장 알리 라리자니가 11일 한 외교석상에서 단결만이 분쟁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현재 예멘과 수리아에 조성된 위기는 군사적방법으로 해소될수 없다고 하면서 오직 민족적단결만이 적대행위를 종식시킬수 있는 최선의 방도로 된다고 밝혔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무력전개시도 반대

이란외무상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가 17일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무력전개시도를 반대하는 정부의 립장을 밝혔다.

미국의 한 관리가 미행정무는 수리아에 전투무력파견을 승인할수도 있다고 암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미국이 무력을 전개하는 경우 중동지역에서 극단주의의 불길에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아랍땅에서의 외국무력의 존재가 극단주의자들로 하여금 새 전투원들을 모집할수 있는 구실로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경찰의 폭압만행에 항의하여 시위

프랑스의 빠리에서 18일 경찰의 폭압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얼마전 경찰이 적수공권의 한 흑인청년에게 곤봉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데 항의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경찰의 야만적인 행위를 단죄하는 구호들을 웨치면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군중을 탄압하는데 광분하였다.

이날 나라의 다른 주요도시들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들이 진행되였다.

자연재해

— 까자흐스딴의 남부지역에서 17일 눈사태가 발생하였다. 눈사태로 7명이 목숨을 잃었다.

— 프스따 리까에서 13일 뚜리알바화산이 3차례 분출하였다.

화산재가 1 000m높이까지 뿜어져올랐으며 분화구로부터 용암이 흘러나오고 방대한 량의 가스가 방출되였다.

—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과 흙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고있다.

큰물로 북부쑬라웨씨주에서 12일현재 1 130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으며 주민지역들사이의 통신이 두절되였다.

또한 흙사태가 일어나 8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약 5 000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한편 발리주에서는 흙사태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수가 각각 13명, 5명으로 늘어나고 총피해자수는 4만명이상에 달하였다. 현지에서 긴급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최대위협으로 락인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16일 이르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의 핵무기가 세계평화와 안보에 최대의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15일 미국집권자와 이스라엘수상이 마주앉아 이란의 핵문제를 화제거리로 삼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터무니없는것으로 일축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수백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이것은 사실이라고 까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계획이 평화적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테로반대투쟁 강화

까자흐스딴에서 테로반대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이 나라의 국가안전위원회는 1월 13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내무성과의 협동밑에 알마띠시와 알마띠주일대에서 특수작전들을 벌려 2개의 급진과조직을 적발하였다.

결과 15명의 테로분자가 체포되고 수류탄을 비롯한 각종 무기가 압수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710315 (정기간행물발송등록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